東亞日報

今日八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 發行兼編輯人 金鐵中 / 印刷人 崔演澤

渡日勞動同胞(上)

形影不伴의歎

一

日本간朝鮮勞働者는 日本에서도一大問題라하는바이지마는 그네의問題는朝鮮人에게잇서서는 그네의問題란것보담 훨신以上의大問題인것이다 日本에잇서서는一社會問題요一勞働問題이지마는 朝鮮人에게잇서서는 同時에種族의興亡을作하는民族的大問題로 極히所謂한意義를가지는것이다 아모리朝鮮人이라도 日本이굿을잇는버러지 재미잇슬줄로생각하지아니할것은 朝鮮오는日本人특히그勞働者의다팝고착살스러움으로써 넉넉히알고남을것이다 朝鮮에와서쓰러이좋은뒤지라다니는사람이잇도록 그네의勞働力의容量과밋그生活保障機能이박약한것을짐작하고 또日本人의性格이嚴重로 仁厚하지못함과 더욱그對朝鮮人의態度가寬大하지못함을다 熟知하면서도 오히려日本日本하고 처미는形勢가 거의무서운潮水와가틈은 얻는말하면 그모든것을모르는바하고 그머릿무릅쓰지아니치못할괴막히는窮況蹙情이잇기 때문아니냐 어째서 朝鮮人大部分의生活이이러케괴막히게 되엇느냐는 理由는넉넉이 말할것업다하자 그러나이미엄연한 事實은 그것만이아니냐

二

朝鮮에잇는僞政者란이는 그 嚮導한特性으로써 하로가멀다 고 幾多의統計表를發見으로써 朝鮮狀態의改善을宣傳하기에밧바한다 產業의發達과 生活의向上이다무서운速度로써 增上한다함이 그中에서도一要目임이勿論이다 그러나따한것은僞政者의마음대로되는것은數字의羅列뿐이지 事實그것은그리곱게 그네의맘대로되지아니한이다 가장下層의일에서한가지實例만을들추어볼지라도 安土重遷의性이남달리深固한朝鮮人 그中에서도特히故土와 安易하다는生活條件을가젓는 南人民衆이 거의魚貫蟻隊의모양으로써 滿蒙의曠大生地를向하야排出涉遷됨은무엇을이약이하는것인가 그의農家的秘作에는 오히려薄土라도 多少의資本을가짐으로써 必須條件을삼지마는 이것도업는빈탈탈이는 무슨生道를찾지아니치못하매 이네들은 日本가는朝鮮勞働者는 실로當初부터이러케殘民된者들이다 本地에잇서서 이미더할나위엄시 된사람들로 日本을向하야더뜻한곳찻게되는 불상한무리이다 그런데北으로또南으로 敗殘의軍을자랑하게된이 무더진큰부러는 統計도외官僚하는政治가行하가며前에는 보러해도보지못하든것이다 그런데官僚의文飾의統計數字가점점好況을보임수록 그流浪漂泊의度가더욱激增騷進을보임은 이어떠케괴막히는일이며 이어떠케官僚的僞政家에對한악착스런「皮肉」과「裏切」이냐 또그런데 우리의要求하는生活費는 저네들의宣傳을據하건대 녀름에는 참인한개면배를두드리는低級慾의것이란것이아닌가

三

試하야釜山埠頭에서서 나날이아츰저녁으로 밀려나가는白衣의떼가 어떠케만흠을보아라 使者는악착하야도 쫓기어가는 「모시」내의生途를 玄海의저쪽에期待하는이가 허구한날에 과약지아니하고 누가對할것이냐 바다물이아니라그네의눈물의고임이 못하고 그우에떠가는동안 오히려 어슴푸레한希望을품음이 괴막히는事實이다 朝鮮에서도生途를일코서 하고만흠부엇인가

米領事眞相調查

고想像하야暗殺하라는것이엇더라(墨西哥市十一日發)

米國務省은墨西哥「니그렌」停車場에서匪徒團에게殺害된者中에米人이잇다하야「카라로아라」駐在米國領事에게眞相報告를命하엿더라(華盛頓十一日發)

歐米人의日本留學

今年부터올려

從來外國人으로日本에留學하는者는겨우中華民國人뿐이엇는바 그것조차近者에는매우減하여오든中에 今年度부터一躍하야歐米各國人은率先하야日本에留學하는者가만흔데 右는昨秋國際聯盟衛生部長「휘시맨」博士其他聯盟加入各國衛生技術官이東京에集合하야技術官會議를開催하엿든바 一行은各方面의醫事衛生施設을見學하고特히內務省營養研究所의施設及研究는世界的으로有益한것이라하야激賞하는同時 同研究所를見學한일이前後四回에及하엿는데 「휘시맨」博士는右事情을若槻內相에게말하야內相의內諾을得하엿슴으로此事를當局及關係者와協議한後

一、今番各國의文化的施設及學術을研究키爲하야國際聯盟은各加入國에聯盟의費用으로서留學生을派遣할事

二、國際聯盟加入國中一國의研究調查한結果人類의福祉를增進할事項이有하면그를飜譯하야聯盟本部를通하야加入國相互間에學術交換을할事

의二項을決議하고第一回로日本으로서도此種飜譯委員으로同衛生局의內野佐野兩博士傳染病研究所의中興宮川兩博士營養研究所의秦宮島兩博士東大教授竹內松次郎氏의八名을專任하야飜譯材料의選擇中인대 營養研究所에研究에關한(米)(病의成果)等도其中에包含되엿다

張家口排日運動

日公使에抗議提出

張家口에서二千餘의團體二千餘群衆이排日運動을行하고芳澤公使에게對하야滿洲撤兵과共히今後는決코張作霖을援助치안켓다는聲明을하라고抗議書를提出하엿더라(北京十二日發)

張氏辭任通電

張之江氏는濟長祥氏의後任으로西北督辦에任命되엿는데그職을堪當할수업다고通電하엿더라(北京十二日發)

于右任氏 暗中飛躍

許內閣奪取策

于右任氏의內務總長就任拒絕은許內閣의前途를豫見하고스사로內閣組織의野心이잇는까닭으로第二軍의援助를得하야目下暗中飛躍的으로組閣運動中이더라(北京十二日發)

黃氏近近赴任

黃郛氏는執政內閣을組織할餘望이업게보앗든지駐獨公使로赴任하리라더라(北京十一日發)

張氏의獨立目的

奉天方面의情報를綜合하면今回張作霖氏가東三省獨立을企圖한데는王永江氏等의主張에依하는것으로前者의產業開發에努力하는것을主로하고保境安民을主로하야滿洲의經濟的充實을計하며今次戰爭의軍費를補塡하라는것이더라(東京電)

第二委員會問題

◇…芳澤日公使談

關稅會議第二委員會는近近開催될터인바最近稅率에就하야日本의新提案說이잇스나目下그런일이업고本問題는用途의問題와密接한關係가잇서各國의意見이一致하기까지는相當한時日을要하리라더라(北京十二日發)

賠償問題討議

舊留弗 十四日開會

露中兩國은在留露人賠償問題에關하야十四日會議를開하야協議討論하기로決定하엿더라(北京十一日發)

赤峰一帶土匪跳梁

各處에서掠奪恣行

戰亂으로赤峰의警備가稀薄하여진機會를乘하야土匪는各地를橫行하고郵便電信局等을占領하며郵便物을掠奪하고金錢을强奪하더라(京城十二日發)

에리오氏再選

佛國下院議長

佛國前國務總理「에리오」氏는二十四票에對한一百八十六多數로下院議長에再選되엿더라(巴里十一日發)

匪徒가襲擊

旅客死者六名 「니그레」停車場

「니그레」停車場에서匪徒集團은列車를襲擊하야發砲한結果旅客六名이射殺되고匪徒는車中에서「아라스코」로軍本的作戰을한것이라

「하」氏兩氏訪問

新聞電報料金低減交涉에合同通信社取締役會長「하바스」…

世界的傑物(4)

理想主義政治家 맥도날드

英國勞働黨의首領

機械的唯物論反對

局面轉換 一躍總理

其領土에 日沒하는일이업다던大英帝國도 歐洲大戰後는內外共히現實的한變局에 當面치아니할수가업게되엿다 其最大의變化는國內에서의勞働黨의擡頭이다 그리하야大戰開始際에는賣國奴의稱을受하든맥도날드氏는 一躍鮮明한社會主義의綱領下에 勞働黨의面目을一新하야 若干地盤을擴大하고 드되어首相의榮冠을帶하야內閣을組織하엿다는 英國憲政史上未曾有의現象을生케하엿다 不幸히勞働內閣은 아직議會의多數를制하기도前에 僅少年으로不得已沒落하게되엿스나 自由黨이凋落하야 아주再起는絕望이된今日 英國은保守勞働兩黨의壯烈한對立에處하야 新時代를向하야 進展하는中이다

獨立勞働黨을創始

彼는一八六六年蘇格蘭의一寒村에서生하고 小學校教師가되엿스나 遠大한希望으로立志하고倫敦에 赴하야「케아·하듸」氏와 서로獨立勞働黨을創設하엿다 當時英國의勞働議員은大槪自由黨에所屬하엿섯스나 一九〇〇年에至하야 彼는今日의勞働黨을組織하고 其常任委長의地位에就하엿스며 一九〇六年代議士에當選하고未久에勞働黨의首領이되엿스나大戰參加에反對하야 平和運動을繼續하엿다

近勞働黨은內部의共產系分子를一掃하야 益益前途有望한在野黨의威儀를加하엿는데名擧있는勞働黨首領으로서「맥도날드」氏의人物은吾人의一顧에值한다

心으로繼續한것이며 失脚을마지못하게되고 七年間迫害와困苦의사이에 劇的奮鬪를하게되엿다 그러나 一九二二年의總選擧에有力한勞働黨이出現하게되는同時에 彼는其首領으로復活하고 翌年에는最初의內閣을組織하기에至하엿다 勞働黨內閣의在任期間은短時日이엿스나 其功績은顯著한바잇섯다 彼는首相兼外相으로서 外交問題의局面을轉回하고 倫敦會議에依하야 獨逸의賠償問題를解決하엿스며

機械的唯物論反對

現今世界의社會主義運動에는「맥도날드」氏에依하야代表되는勞働黨系統과 露西亞를中心으로하는…

議定書를成立케하야 相馳되든歐洲諸國間에 協調의態度를指導하엿다 그리고「로칼노」條約과如한것도「맥도날드」氏의播種을收穫한것이다 따라서歐洲의復興은彼의努力에 依하야비로소其端緖를 엇엇다하여도過言이아니다

「맥도날드」氏는近代의生物學的進化論에立脚하야 社會의平和的成長과發展을信하고 本能的의努力을排斥하야理性을根據로하는者이다 그의主張에依하건대 社會主義運動을 暴力的으로하려는中에 一方급한理論이며 唯物觀에立脚한理論이다 맥도날드氏의穩健한主張은漸次諸國의社會主義運動을風靡하려는中이다 그러나 急進主義가對立하야 指導勢力을爭하고잇는데 赤露의旗色이稍衰한것에比하야「맥도날드」의聲望이높다 彼는個人의幸福과個性을尊重하는民主主義者이다 彼는歷史와傳統을尊敬하는者이다 彼는機械的唯物論에反對한다 彼는民衆의理解와信賴에基하야 政治를行하려하며 專制主義에는如何한것이든지反對한다 彼는今日英國의理想主義政治家로서 世界의政治家로서는 英國以外에서도 彼의理想이何日에完成될것인지吾人은放心하고其日의到來를興味로써待하려는것이다

文部問題가中心

◇大河內正敏子談

今期日本議會에서問題될것은對中問題鐵道問題、稅制整理問題、義務教育費問題其他이지만은此等은그러케紛糾를來치아니할것이나文部問題는目下研究會內에서도매우問題가되야空氣는惡化에傾하엿슨즉樂觀을不許한다 前議部와同交會와의會合을보게되리라더라(東京電)

佛國政界險惡

總理反對運動再燃

佛蘭西議會는再開勞頭에聯合派閣도支持困難의兆가잇더라 分子는「부리앙」總理에對한反對運動을再燃식혀다從하야同氏內(巴里十一日發)

田中男勅選

意思有無質問

◇協同會對首相

日本貴族院男爵議員補缺選擧에關하야協同會方面에서는田中政友會總裁는勅選議員으로勳任될것은當然이라는見解下에政府에對하야그意思가잇는지一次加藤首相에게對하야그奏薦與否를무르려볼必要가有하야하야近近加藤首相과幹部의會見이有할貌樣이라더라(東京電)

速斷은無要

十二日定例閣議

十二日日本定例閣議에서字垣陸相은滿洲派兵撤退狀況을報告하야十九日外지에그完了를보겟다는旨를報告하고다음幣原外相은關稅法權兩會議其他中國現下의時局에就하야報告하고仙石鐵相으로…

稅制特別委員長問題

各黨이爭奪計劃

日本議會의稅制整理特別委員長問題는各派의가장注力하는바임은明白한바本黨에서는可及的同委員長의椅子를自派에收하라고研究中인데單獨占의希望이업合으로政本兩黨의協議에基하야…

本黨果然硬化?

注目되는井上氏發表

日本議會再開期가臨迫함을따라衆議院各派의態度는非常히緊張하여간다 憲政會는恒常本黨의態度에深甚한注意를하고잇는中 先日本黨은政策問題에對하야는政府에對하야一步도讓步치안할것을表하엿는데十一日本黨의稅制調查委員長井上氏가義務教育費와自作農免稅를除한外政府本案은大概同樣이라고發表하엿슴으로一般에서는注目하는바이라더라(東京電)

田中男推薦

政府가面反對

日本男爵議員補缺選擧에關하야協同會는田中男推薦說을一方으로主張하고잇는바 日本貴族院의政府方面에서는 …

同交會議員會

日本同交會에서는十一日午後在京代議士會를開하고協議한結果對議會策에就하야는全部의代議士가會合하야이를決하기로하고選擧區等의關係에依하야只今直時發表하기는困難하다고近日中에發表하기로決하엿더라(東京電)

提携

政友와同交 無條件

最近東京에서田中政友會總裁와中橋氏間에圓滿한會談이有한結果政友同交兩派는當分間合同치안코無條件提携의親善關係를進行하기로意見이一致되엿슴으로議會再開會前後하야政友幹部와同交會側의會合을보게되리라더라(東京電)

無線方策

根本的變更

八局을配置

東京放送局의加入者는一月十日現在가지十四萬六千人에達하엿는데只今도每日七百乃至七百五十位의加入申請이有함으로不日中에二十萬을突破할盛況이다 大阪放送局은昨年十月末에四萬에達하엿슴으로其後거의增加치안코名古屋放送局은一層甚하야겨우一萬六千에不過함으로兩局은共히經營難에陷하여잇는狀態이다 此에鑑하야所轄遞信省에서는最近數個月에亘하야詳細한調查를行한結果一昨年秋에樹立한方策을根本的으로變更할수밧게업시되엿다 即現在의東京大阪名古屋을合同하야經營難을救濟하는同時他의獨立한放送局은今後許可치안할方針이라는데一昨年遞信省에서樹立한方策은日本(本州)朝鮮及關東州를四에分하야現在의三局外에北海道「東北、中國、九州、臺灣」에各局即八局을許可하야無線網을配置하기로한것이라더라(東京電)

放送局許可

二月中에八個

日本遞信省은七十數件의放送局設置願에對하야調査中이든바今月末外지는札幌、仙臺、新潟、金澤、廣島、福岡、熊本의八個所에許可하기로決定하엿더라(東京電)

拓務省設置案脫稿

每年問題가되야오든拓務省設置問題에就하야는黑金氏가拓殖局長이된以來로亦是調查研究를遂하는中이든바此程立案脫稿를見하기에至하엿슴으로近近그것을首相에提出하야幣原外相과內外行政調查會에提出하야그審議를乞하기로하엿다더라(東京電)

同交會 發會式延期

日本同交會는當初來十九日發會式을擧行할方針으로準備中이든바十一日의緊急相談會에서는其後入會할人士에게形便이조치아니하리라하야이를當分延期하고同日會員總會를開하야會則政策等을決定할同時에新入會者를發表하기로決하엿더라(東京電)

無產黨組織

協議와警戒

日本農民組合外九個團體幹部는今十三日午前十時부터大阪中央公會堂에會合再度의無產政黨組織에對하야協議하엿는데當局의警戒는매우嚴重하엿더라(大阪電)

露國商務官

活躍을開始

過般入國을許한露國商務官「레이」一行十一名은十一日突然히東京에到着하야露國商務部를東京에設置하기로決定하고活動을開始한바林業交涉도行할貌樣이더라(東京電)

鐵關稅引上

外務省에反對

日本에서十二日閣議散會後、濱口、片岡、三相은特히時間에…

解散은勢不得已

憲政緊急幹部會

日本憲政會緊急幹部會는對議會策協議의結果本黨의硬化判明치아니하나이에오로나는이면政友兩派間에도少數로解散은勢不得已의形勢이라고有力하게되야와合으로黨으로는日에一大會에備하기爲하야二十日大會宣言에서도此全國支部長會議에서諸般의協議를하여두等必要가잇다고決하엿슴에…

議長은米代表

法權制度調查會議開會式은本日午前十一時擧行되야米國全權「스트론」氏가議長에選擧되엿더라(北京十二日發)

治外法權撤廢

하로라도일즉

◇…許總理談

開幕式에參列한許世英總理는欣然히말하되各國委員이此時局에도不拘하고誠意로參集한것을感謝하며一日이라도일즉治外法權의撤廢를希望하노라云云(北京十二日發)

法權會議開幕式

王氏의謹嚴한人事

法權會議開幕式의臨時議長인王寵惠氏는謹嚴한態度로法權調查會의開會式이無事히終了한것은무엇보다慶喜하는배라고述하고列國을代表한日置代表는同情과誠意를基調로하야簡單한演說을하엿더라(北京十二日發)

日本의獨舞臺

外國委員讚辭

關稅會議는

法權會議에列席한外國委員의意見은從來의國際會議에比하야日本이가장…

法權豫備會議

圓滿히解決

◇…日全權談

法權會議에關하야日置全權은말하되豫備會議에서議長問題其他障碍를排除하고無事開會한것은同慶에不堪하다 …(北京十二日發)

選擧法施行令

政府의態度

日本樞府委員會에서修正된選擧法施行令은二十二日閣議에서再審議하게되엿는데…(東京電)

議會解散도

產米案에無影響

總督府의言明

朝鮮의產米增殖計劃은今年度부터實施하기로決定되엿는데萬一日本議會가解散을當하면朝鮮의產米增殖事業에影響이업겟느냐하는問題에對하야總督府當局은말하되…

郵便事務員

特別히養成

朝鮮의郵便所는總數五百五十五個所인바이는通信機關總數의八割에當한다 그리고成績如何는直時朝鮮通信事業에影響이됨으로遞信局은幾多郵便所事務員의特別養成을計劃하고京城、釜山、平壤、元山、淸津의五個所의各郵便所에서選拔한百八十名을一個年二回卒業으로養成하기로하엿는데그第一回卒業生은今月末에各其郵便所에歸屬식히리라더라

遞信從事員一萬人

朝鮮遞信部內事務官以下從業員은現在高等官四十七名判任官一千八百六十四人雇員四千八百六十五人總數一萬一千二百九十八人인바朝鮮人이約半數의五千二百三十六人이라더라

橫說竪說

◇張作霖의顧問町野君은、張氏가疲勞한다면、나도疲勞하엿다하고、張氏가下野하면、나도下野한다하드라고、地獄까지라도同行할貌樣

◇日本警保局長松村君은、日皇의喪中에、國際維持條件이며無產政黨組織을、許與하겟다고 …

◇賭博者에게、祖國이업다는、새로운말은、꿈에도못들어본…

文化生活 家庭讀本 定價五十錢

增補 戶籍法令及書式

歷史小說 閔中殿實記 定價四十錢

演譯 西廂記 定價四十五錢

古代小說 王將軍傳 定價二十五錢

新舊書籍 都散賣商 大山書林 京城府鍾路二丁目七十一番地 振替口座京城一八七〇番

此外에도萬種書籍을具備하옵고相當한價格으로迅速酬應하나이다

京城府鍾路三丁目七十一番地 新舊書籍 都賣散賣 大東書館 振替京城一〇三六六番

五圓均一 蹴球靴 山羊皮 白黑紫三色 注文大歡迎? 學生諸位 實用蹴球靴 但地方代金引換 京城府北社洞三四番 華進洋靴店

果樹苗木 高麗農園

感氣散 潤痰鎭咳散 濟春堂

慈恩島小作爭議

家家戶戶에 食糧까지 差押

不安恐怖中의 二千小作民 警官二十名또急派

무안군 자은소작쟁의(務安郡慈恩小作爭議)로 소작인 사십여명이 검거되아 목하취조를 밧는중이라함은 루보한바어니와 근일 그섬안으로부터 새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후에도 그섬안에는 무장경관 사십여명으로 섬안을 엄숙히 경계케하는중이라하며 그한편으로 집달리(執達吏)를 파송하야 가부동 ... 디주의주구배들은 그경관의 위세를 빌어가지고 자은소작인회에서 도아주엇든 소작료 ... 곡식도 남겨두지아니하고 모조리 차압하는 동시에 ... 강제로 징수하는데 만일 ... 아니하면 추상가튼 호령을 하며 단장으로 함부로 두다리고 ... [illegible]

特派入島禁止

경성로동회(京城勞動會)의 원 ... 에서도 아주엇던 소작료 ... [illegible]

泰川에서또衝突

武裝團一名被殺、一名被捉

지난십이일오전열시경에 평북태천군 강동면송남동(平北泰川郡江東面松南洞) 원원경(元元慶)의 집에 무장단 두사람이 ... [illegible]

朝鮮無產青年

(朝鮮無產青年團)에서는 ... [illegible]

數理研究會

延專校에서組織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 수학과 ... [illegible]

治安維持法違反?

원산청년회위원검거사건

원산청년회 집행위원 ... [illegible]

麵屋配達復業

경성부 ... [illegible]

陳情書도撤回

[illegible]

長淵郡의强盜

지난팔일밤 열시경에 황해도장연군 ... [illegible]

鷺梁津殺人强盜

金浦서眞犯檢擧

여러두번서로보내여취됴중 아즉사실은자백지안는다

◇…兇刀도窃取한것

작년칠월십삼일 오후열한시경 노량진(鷺梁津) ... [illegible]

龍山에大豺

[illegible]

십년을하루갓치 (十一)

地計衙門에도從事 帝國、大韓新聞에도

◇活版所에卅四年間 印刷工 趙炯文

조선에 활판과 긔계가 처음드러오는날부터 인쇄공이되여 삼십사년동안을 하루가치 종사한 조선최초의 인쇄직공 ... [illegible]

朝鮮初有活版

... 긔계운뎐을하소 ... [illegible]

不敏한탓으로

이루어지못해 ... [illegible]

帝國新聞印刷

처음으로신문인쇄 ... [illegible]

今日이日蝕

[illegible]

大韓每申文選

[illegible]

卌四年積功이

두식구밥버리뿐 ... [illegible]

례닌追悼講演

이십오일에

... (경무국발표) [illegible]

갈、로兩氏 追悼講演

京城青年聯合

... [illegible]

日人色魔에蹂躪되야……

運命에우는女性

一他關에서私生兒一

옹바가면젹된가두려워서 쳐녀의뎡조를허락햇섯다

◇…安州某老官吏의罪惡

그색마일본인은현재안주군

... [illegible]

더신한오단은 만약에두번재

[illegible]

벌서그녀의몸은안이엇섯다

[illegible]

전가족의생명을매달고잇는

[illegible]

생활비도보내주지안음으로

[illegible]

水災後의惡疾로

三千餘名死亡

二十餘個村落全滅

◇…墨西哥大洪水後報

... [illegible]

氷上競技大會

十七日에開催

조선체육협회(朝鮮體育協會)주최의 빙상경기대회는 ... [illegible]

〉휴지통

[illegible]

三共特製過酸化水素液 オキシフル 오기시후루 三共株式會社

海州墨 翰林風月一挺 百世清風 碧城香烟 六角塔 芙蓉堂 白陽梅月 古川墨 ... 海州製墨所 崔炯奎 金泳澤

坂井醫院 耳鼻咽喉科專門 醫學博士 坂井清 入院隨意

地方事業 ミヤコ合資會社

六合商會 고리표고무靴

注意 保眼屋

高級眼鏡定價票

專門診療 梅毒 淋疾 仁壽堂醫院

별표고무 商標

人氣의焦點、斯界의覇者인 별표고무

【商業部는】 米、玄米 ... 【工業部는】 ... 特約店大募集

中央商工株式會社 社長 金性洙

별표고무靴自今續業出來!!!

洋靴大革新紀念壹割引賣出

舶來茶ボックス皮短靴 舶來茶ボックス編上靴 舶來茶キット皮短靴 舶來茶キット編上靴 黑ボックス皮短靴 黑ボックス皮編上靴

上記價格에서壹割引減하와提供

青年洋靴店

ClibPDF - www.fastio.com

주장과비평

교육밧는 (八) 조선녀자의압길

李三堂

◇홀로이득」힘을 이지안코엇는것은사 람마다입으로는비우 스면서도속으로는바 라는것이다 이때에미두가성 히고 경품매매들이 번창하는 것이다 더구나 녀자에게 잇서 서그러하다 아모리가난한집딸 로태여낫서도 부자집헌데 시 집만가면 혼인례식하는잇흔날 부터부자집아씨가 되는것이오 아모리미천한집 딸로 태여낫 서도왕공가에 시집만가면그잇 흔날부터 폐하가되고전하가되 고넷날로말하면 정경부인도되 는것이오 오늘날도 아모씨부 인이라하며 그아모씨가밧는명 예와대접이 곳내것이되여버리 고마는 것이다 양귀비나심청 은말할것도 업거니와 현재에 그러케조혼제비를 엇아다밧에 생을잡은녀자가 적지아니하다

◇이때문에 녀자가 시집가는 것을심히서러한다 부모가억케로 라도 보내어줄때에는 문데밧 기지마는 내가시집을가다고들 면좀처로 마음에드는이가업는 법이다 다시를느지 못할홍정 이나빠잘못되면 부자도될수 잇고귀부인도 될수잇는것을그 와반대로 한번아차 잘못하면 고만일생을 가난방이천덕군이 나되어버리는것이다 게다가아 직조선에서는 밥에아니만는다 고곳리혼도할수업고 한번리혼 을하는날이면 녀자는 고만녀 마찬에넉마와가치 천하게되어 이전남편보다 한층나즌남편에 게밧게시집갈수가 업서지고만 다그러하니삼가고 삼가고서리 고또서리고 고르고고르는것도 잘하리당연한일이다 그리하여 녯날모양으로신랑고르다가처 녀다늙는다」는한탄을발하게되 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분명히 잘못 이다 웨이러케 남편을고르기 에서리고 삼가는것이잘못인고 그것은남편을 고르는 표준이 잘못된 써닭이다 신교육을밧 어새로운사상을 가지고 새로 운생활을 하여야할 신녀자가 아즉도 남편을 고를때에는 넷 날생각과 넷날표준을 따르는 써닭이다 곳시집가는 이튼날 부터 남편의재산과 영광으로 자긔가 처녀적보다삼작이부자 가되고 갑작이귀인이되기를바 라는써닭이다 아즉도시집가는 것을 팔자의제비쌉는것으로압 기써문이다 이것은신녀자의큰 수치다

미국소녀시인

열두살된계집아희가 시집둘을발행하엿다

나엘리아 크렌인이라는 열두살먹은 처녀가 「문직이의아들」「려바스골목」이라는두시집을발행하엿는데 이것이 정말이어린처녀가 지은것이냐 아니냐하는문데로 론토론이 생겻다

이토론을 니르킨이는 미국시가협회명예회원 에뒤 마캄씨인데 그는『부루클린 데일리이글』이라는 신문에 이러한편지를보냇다—

「나는이여러가지 색채를가진시를읽엇소 그중에 엇던시는참된 시의반작임이잇스나 나는이것이 어린아희가 쓴것이라고는할수업다고밋소 그랑성과 인생에관한 로숙한 생각이라든지여러가지보희는력사와 고고학(考古學)에관한전문뎍지식이라든지 도저히 어린아희로는가질수업는것이라고밋소말할것도업시 이것은 엇던시잘짓기로일홈난 젊은남자 네사람과젊은녀자두사람이 포도주와 가얌을먹어가면서 세상을한번 속여보량으로 지어노흔것이 분명하오 세상이 심심한것을 새트리랴고재조를부린것이오 미국사람은 이런작란을곳잘하는것이오」

그후에『월드』신문지긔자를대하야 마캄씨는 이러케말하엿다—

「나는 나엘리아를공격하려함이아니오 다만그시를보건댄 넘어로청하여서 열한두살된 아희의힘으로 될것갓지안타고 함뿐이오 아모가보더라도 그러케미숙한아희가그러케로성한시를지으리라고생각을아니하겟지오하지마는 세상에는 별일이다잇스니가그시를 나엘리아 자긔생각으로 자긔뜻으로썻슬수도 잇겟지오 만일그러타하면 그런일도잇다하면 나엘리아는 미국의큰천재지오 만일그러타하면 나는그아가씨의 시인의 전도를축복할수밧게업지오」

그런데또요평론긔자에미러브먼양은 이러케말하엿다

「나는이시가나엘리아의 것이라는데대하야 조곰도 의심할리유가업다고 생각하오 그는천재라면 그만아니오?」하엿고나엘리아의아버지되는콜라런쓰 크렌인씨는 마캄씨의말에대하야

「미국시인중에 좌상이오 흠은이인마캄씨는 내딸 나엘리아에게대하야 부질업는 공격을하고남의시를 우습스거리를 만들엇다…마캄씨는내딸에게사죄를할의무가잇다」고하엿다고

創作 眞珠는 주엇스나 (八三)

廉想涉 作

八—七

안남작은 래빈원데의 대표로 답사를하얏다 그는 리근영이의 실업계에대한공적을찬양하고나서 그가망륙의나희로도 놉히결혼하는용긔와정력의놀라옴을찬란한후에 열해사람에게 부축여서저오안젓다

효법이는 그동안에 아예더잇서서무슨말을하겟다고하는지주사를달래서 신여옥이의 소식을알아오라고내여보냇다

안남작의축사가끗난뒤에래사상이 넘어섯다 그는리근영이가자수성가한 성공담으로부터 사회사업에로력한공적을찬양하야자신문에오백주를인수한일레를들어치부와리재모범이라고력찬하고조인숙의 의련재를찬탄하엿다

이와가치조선사회대표인물들의축사가끗난뒤에 효법이가 뒤를니어섯다 여러사람의박수는 한청더하엿다 그것은 재롱으로도그리하얏고 신문에올으나린 김효법인줄아는사람은 호긔심으로도그리하얏다 그러나 주인측에서는 또한번놀랏다

효법이는업굴이화근달른것을째다랏스나 침착한태도로 목소리를가다듬어가며 천천히 말을시낸다!

『지금 두천생님의 간곡하시고해설하신 축사는 우리일동의미충을대표하고도남음이잇슬줄밋습니다 한분은 신랑의그청력의 왕성하신을 란상하시고한분은 그금력의 위대함을력찬하셧습니다그러나여사람은리근영씨와 및조인숙 부인이우리에게 두가지 귀한교훈을베푸심에대하야감사한뜻을표하랴하는 바이올시다 한가지는 주여러분이 살아시는바와가치 일세의명홍이라 일컷는나파륜은 몃천만의 적은나파륜이잇슴으로 일개의 대나파륜이됨과가치리근영씨의젊은한정력과 풍부한 재산에는몃억만사람의 정력과 땀방울이엉기어서 되엇다는 것이효 또한가지人교훈은한사람의현세덕행복(現世的幸福)이열사람백사람천사람만사람의행복을희생하지안코는 도더하 어둘수업다는것이외다 만일 도덕이라는것은 자긔이외人것의행복을 침해하지안는것에서부터 출발한는것이라 하면한개데(個體)의 행복을 위하야 여러개데가 희생됨은무론죄악이겟지요 그러나 그것을금력과 사회라는 집단력(集團力)으로써 선(善)이라고공약(公約)할디경이면 조금도부도덕이 아니라고도 할수잇겟습니다 그러나 그러한사회는마지막날이 갓가워 왓슴을긔억하야 두어야 할것이외다 나의말은 가장평범한말이나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째다를날이잇스리라고생각하는바입니다

나는나의말을 증거하기 위하야 여러분이 눈압헤보시는 한가지실례(實例)를들겟습니다 여기안진이녀자 (문자를가르치며)를보시면여러분중에는긔억이잇스실분도잇스리다이녀자는두달전까지는인천○○학교교원뎡문자양이올시다이녀자에게는약혼한남자도잇섯습니다이녀자에게는발은길로살아나가라는양심도잇섯습니다이녀자에게는사회를위하야차우라는용긔도잇섯습니다그러나 저긔안젓는 한남자의행복과 또한그의행복을위하야 한녀자의행복을위하야 그리고 못남자와 못녀자의쾌락을 위하야 저단에바친희생이 되여서자긔의 직책에서는 쫏겨나게되고 자긔남편될 사람에게는버린바가되여 두달동안을 이사람에게 의탁하고 다니엇슴니다 그러면이사람이 이녀자와 그소위『김호관계』가 잇는가 그것은이사람이 이자리에서 변명코자 아니하는바입니다 구구한변명을 피할지라도여러분은 아실날이 잇슬것이다여러분그러면설사이녀자가유레의 목숨을 선치안는다하드라도이녀자는법서죽은녀자외다그러면이잔채는엇더한잔채입닛가여러분의식탁에노힌고기는이녀자의살뎜을버혀서불에구어노흔것이아니고무엇입니까? 여러분이맛잇게집어서여러분의목구멍에넘긴그진미는 이녀자의살이요뼈요 창자가아니고무엇입니까? 만일여러분이 나의 이말을알아듯지못하시거든저긔안즌래추관씨가 주장하는 ××신문의주필이일 십이원의 랑일치신문을보시고또한중인을어더소상한일을 아시고 십흔분이계시거든그신문사긔자이든신영복군과 키키안젓는 진형석씨의사무원이든지외용군과기다진형석씨의집에 드나드든 모든사람과 조인숙부인의 서신파를 상고하야보시면 아실것이외다 최후로 나는리근영씨의 광휘한정력과 위대한금력을찬미하고 축복하지 안을수업는것을슬퍼합니다!이결혼식의정당하고신성함을볼경하지안을수업슴을슬퍼합니다』

童話 벼룩의갑 —(四)—

碧湖生

이때에어데갓다가 돌아오든딸이 집에와서본즉아버지어머니읍빠할것업시 세사람이엉엉처울기에 집에큰일이낫나보다생각하고『웨이리울으세요』하고물어보앗습니다

『애복녀야』하면서 아버지는눈물을흘리며『지금어머니가눈을감고울길래로 엇재우느냐물으니까 앗가엇던곳에서벼룩한마리가 화루에떠러저죽은것을친고되는니가 섧어울겟지이것을집웅에안젓든가마귀가 보고뜻청하야울으니까 졋헤잇든매화가보고 우는것을늑대가보고울드라누나 늑대가우는것을강이보고는 물을말니우고울으니까 이번에는너의오랍동생이그것을보고 울며도라오니너의어머니가 참을수가업서울드구너의어머니가저럿케 섧어서우는데아비되는내가 가만히 잇슬수가잇겟니?아이 섧어라』하엿습니다 둣고보니딸도섧어서『그럼나 도울터이니좀기다려 주서요』하며가위로자긔의귀를잘고 소리처울엇습니다

딸은무슨 생각이낫든지 밧그로나아가서 자긔동이우는섯닭을근처사람에게 말해주엇습니다이번에는 근처사람도 다갓치울게되야 이집에서저집으로울옴이돌아갓습니다 이리하야이촌에서 저촌으로 올마가서나종에는왼나라이 울게되야그울음소리는 하늘을울니고그눈물은 령을꿰사엇습니다 만은그근본은다른것이아니고 조고마한벼룩한마리가 화로에써러저죽은것이엇습니다(쯧)

童謠 새빨안고초밧

晶東

새빨안잔자리
처녁바람에
사왈낭삽낭
벌판으로돌노
쏫기여감니다

붓주하든추수노래
끈치여버리자
논벌에는삼바친
허재비가하나
깍깍이나라듯는

토방가에는
놀하니해볏도
엷버젓는데
새빨안고초밧
펴노앗습니다

겨울갈매기 (童詩)

同人

펄펄펄흰눈은
江邊에나는네
鷗鷗鷗鷗야
너어되가느냐

엄마를차저서
故鄕을가느냐
난두야타고서
가치나가자꾸

작일은홍꼽이
자하나조흐랴
희치는날개가
발아니뎟구나

少年東亞日報

서울少年會移轉 서울소년회에서는 지금까지는 당주동이십팔번디에 림시사무소(臨時事務所)를두고 사무를취급하엿섯스나 보험십일일부터는 시내적선동 삼십이번디(積善洞三二)로회관(會館)을청하고 이전하엿다고합니다

江景女靑討論會 강경항산례배당안에잇는 녀자긔독교청년회에서는 지난구일밤여덟시부터동회당내에서 현대조선의급선무가 교육이냐실업이냐?라는연제로 토론회를열엇다는데가부각편이각각열변을 토하엿스나 결국교육편이승리를어덧다고합니다(강경)

文川少年蹴球大會 함남문천군귀산면상평리(咸南文川郡龜山面上坪里)견지일용단(堅志一勇團)주최로지난칠일양일간운동회를 동단운동장에서개최하엿다는데 우승긔는초면(郡草面)노흥례양단(讓興體蒼團)에도라갓다고합니다(문천)

通川少年團總會 강원도통천읍동천소년단에서는 지난일일팔일오후일곱시부터 동회관에서 림시총회를 개최하고여러가지사항을 결의하엿다고합니다(통천)

安邊少年夜學 안변소년회(安邊少年會)에서는 지난십일부터 야학을시작하여사십여명학생이 열심으로공부하는중이라고합니다(안변)

隨想 헛튼수작 (二)

孤星

술이얼큰이취하면 平素에난의體面이나自己얼골이나彼此間情誼나 그밧게여러가지쉬리는것이잇서 거짓말로들너대이든것도 그런케얼큰히취하고나면터럭만큼도숨기지아니하고속바른대로말을한다 취하여가지고한말을所謂醉談이란야숙스러운길을씨워서말시를하지만 그아말로醉談이다醉談은참말로眞談이다 그럼으로술이사람을속이는것이아니라사람이술을식혀서그사람自身을속히게하는것이다

◇

술을실컷먹고배人속에잇는말을를썬더러놋코는 그잇흔날은입맛을쌉쌉다시며 『그것은모다醉談일세』이사람아 醉中에한말을그럿케노여워하나『허허彼此에醉中일세』라고 하겟다? 보기에도엄굴이간즈러워 이것이술을식혀 自己를속이는것이아니고무엇이냐

술먹은 주정군과싸우는사람을말니면서『술취한개라니그것무어라고탄을하나』하겟다? 개라니말이지 개는사람처럼고러케못되게 그짓말은하는법이업다

술身勢도奇薄한것이다 조아서먹히고 조케正直하게勇氣잇게하여주엇건만 애매한허물과욕설은 혼자서도맛벅으니 배주고속어더먹긴가 울며겨자먹긴가 술身勢나내身勢나저울에달어보면 半分重을날가말가할것이다 그러니緣分일시分明하다 天上緣分

◇

그러나술이어대로보든지 다좃타는것은아니다 그처럼조흔點도잇고 달리나진點도잇고또달니조흔便도잇고 나진便도이고 面面히다달으다

그런데말이 좀뒤밧귀엇지만우수운것은 건주정군이다 남이『저사람은취햇느니라』라고認定하는고 힘만어더가지고는 공연히『어—뤼튀』하며 허엽으라진소래도해보고 비틀거름도해보고그—러닛가 숭풍먹고주정한다는 녯이야기도생겨난것인가보다 그러나이反面으로넘우量에過하도록 먹기때문에自己의本意識을 이저버리고혓行爲를하는수가잇다 이것은조케보자면 쉽이나원반이요낫게보자면 그동안만큼生命에損害를보는것이다 술타령이나오기시작하니 길어지려고한다닭이우니그만두고何如間술이란조코도나즌것인데엇전지생각이또솟곳하여진다그러나그만두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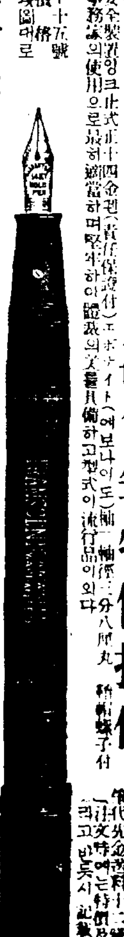
一九二六、一、九、

新刊紹介 ─紹介를要하는冊子는東亞日報社編輯局으로보내주시오

▲朝鮮農民新年號 內容은『新年新興農民과農業은人間生活의基本 農民의벗이되자 農民을보라조선농민은눈떳다』等其他十餘種 定價五十錢 發行所京城慶雲洞八八 朝鮮農民社 振替京城一四八三九

壹月拾日晝間부터晝夜二回
特撰名畵公開
△米國파테—文社 寫實 週報 全一卷
△米國호후만후미유—지맨드社 連續活劇 不見의光線 全十五篇 第三回 第五、六篇 四卷上映
京城키네마 界에問題를惹起한 原作脚色監督 李慶孫 撮影 李弼雨 喜劇 멍텅구리 全六卷
△米國메도로—루도윙社 喜活劇 女性을戲弄하는男性 八卷
◇豫告◇ 文藝映畵『戀의凱歌』全八卷 同『思出』全十卷
폭쓰社特約 優美館 【電話光化門二九五番】

トランセンド十五號 市場價格 五圓의것을現圖대로
正十四金 保險付 トランセンド萬年筆特價提供 特價金貳圓八拾錢
安全製겸잉크止式正十四金펜(責任保證付)エボナイト(에보나이트)軸 輸價三分八厘 丸精輔螺子付 事務家의使用으로最히適當하며堅牢하야證券의大量具備하고型式이流行品이외다
(代金引換은二十錢 郵料十二錢) (注文時에는特價及十五號라고반듯시記載하시요)
品質의優秀하기歐米品보다優秀할지언정못하지안코價格의低廉하기無比함、그러고도運筆輕妙하야참으로理想的萬年筆이라고자랑할만합니다、官公吏學生及新進事務家諸子는使用하야能率增進을計圖하라
◇製作發賣元 東京市神田區表神保町三番地 廣業社製作所 振替東京二〇五六〇番 電話長神田四四二一番



三個包裝에는無漏히 景品封入
ベルベット石鹸 (베루베도)

라구도겐
ラクトーゲン
理想的育兒料로서優良한點
成分─母乳와거의同一한組織으로加工되야消化吸收하기쉬웁고特히脂肪의吸收키容易한事
完全─가장衛生的으로全히無菌狀態로製造되야純良하고도新鮮한事
重寶─腐敗變質할念慮업스며貯藏安全하야何時何處에서던지溫湯에녀흐면母乳와갓치됨
注意 사실적에는라구도겐이라指定하십시오 또한登錄商標에留意하십시오 使用하실때에는반드시添付한說明書를읽으시오

定價 大罐六圓二十錢 中罐三圓二十錢 小罐一圓四十錢
全國有名藥店食料品店에잇소
乾卯食料品株式會社 大阪市東區伏見町二丁目 東京市丸ノ內ビルヂング

化粧이떠러지지안슴니다
化粧에꼭必要한
白粉下 御園の蕾 (미소노의쓰보미)
1 白粉이마음대로速히곱게잘붓습니다
2 白粉이오래가고化粧이떠러지지안슴니다
3 皮膚의營養을더하고充分히保護를합니다
4 皮膚가것칠거나뻣해지는것을防止합니다
本舖 東京 伊東胡蝶園
朝鮮代理店 釜山本町 福榮商會
五八九

ClibPDF - www.fastio.com

群山勞聯新陣容

內容刷新、宣言綱領制定

群山에서勞働團體를網羅하야去年一月一日에創立한群山勞働聯盟은鄭泰寬、金永輝、車周相諸氏가中心으로가장組織的으로進行하면바中途에不幸을거듭하는全北民選事件에鄭泰寬、金永輝氏等이投獄케됨으로多大한支障을受하야沈滯狀態에至하얏든바同會第二回定期總會를期하야復興的氣勢로努力하든中去十二日夜八時부터同會館에서內容을一新刷新한結果左와如한宣言綱領을發表하며會務擔任者改選任員은如左한바群山에多少間勞働界가紛紛하얏스나無事히經過되얏스며當日發會會員의注意로의宣言綱領은不穩하다하야發表禁止를當하야一時는場內가殺氣를聯想케하야치안을수업섯다고(群山)

◇宣言(略)

◇綱領

一、本聯盟은勞力勞働의組織的團結로써새社會를建設할新兵과敎養을期함

一、本聯盟은無產階級運動의先驅가되기를期함

一、本聯盟은無產階級局面의情勢와利害를調査하기에努力함

◇任員

▲會長李會植▲副會長白鎭鶴▲評議長崔東吉▲副評議長丁李泰▲評議員全斗日外二十人▲庶務部長車周相▲經理部長李在洪▲顧問金明煥、金庭得、金汝章、李中植、金相康

◇參加團體

配達夫同盟、米搗組合、勞働共濟會、傭友同盟、印刷工組合、共同勞働會、新興組合、精米組合、人力車聯合會、東新勞働組合、群山分所、

四個條決議

木浦農聯委員會

木浦에잇는務安木浦勞農聯盟은農民聯合과勞働聯合으로分立하얏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去十一日午後八時에本報木浦支局內에서農民聯合會執行委員會를開催하얏다는데讓渡한五郡의前會員及分立實行에關한協議에依하야長時間討議한結果左와如히決議하얏다고(木浦)

◇決議事項

一、執行委員은次大會時까지臨時執行委員으로崔鉉水、徐東五、黃岸、崔東雲、蘇宗根、洪大均、金仁洪、金海雲、金在洪、南淑、金明淑、薛成根을選擧함

一、臨時大會는一月二十五日에開催하기로하고出席代議員은二人으로할것

一、聯合會臨時事務所는東亞日報木浦支局에置할것

一、慈惠病院에依한犧牲者救護事務는本聯合會에서取扱할것

交涉委員上京

道廳移轉防止와鐵道敷設도交涉

旣報=春川郡民大會의決議로總督府陳情委員李東根、申九鉉、金泳模三氏外日本人四名이十三日에入京하야總督府와政務總監과鐵道局長을訪問하고江原道廳位置는春川으로定하야住民의不安을除하고京城春川間의鐵道를敷設하야產業을發達식혀도록하야달라는陳情을하는中이라고(春川支局電話)

河東勞聯서도陣勢를整頓

風風雨雨의乙丑을보내고有意多望한丙寅을마지한河東勞農聯合會에서는過去의非組織的임을切實히느기는同時에一層의陣容을整理하고新年의新戰術을討議하기爲하야去十日午後三時頃에當地事務所內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고臨時議長金淇元氏의司會로任員改選과밋左의事項을決議하고同八時頃에閉會하얏다고(河東)

◇決議事項

一、新年의事業計劃에對하야郡當局에對히交涉할일

一、舊正月中에各面農村巡講을施行할일

一、우리의運動을徹底히實現키爲하야行世的假飾分子를撲滅할일

坡山學校昇格運動

巡廻講演까지

坡州郡坡平面私立坡山學校는二十年前隆熙元年에坡山有志諸氏의熱誠으로創立하야有志諸氏의熱誠으로大正十年에校舍를新築하고또基本金二千餘圓을積立하야維

解散當한文川青年同盟

去十一日再次決議

咸南文川郡文川青年同盟은創立總會日에解散을當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去十一日午後一時에朝鮮日報文川支局內에서議長全澤滿氏司會下에大會를開催하고諸般事項을決議한後同六時에閉會하엿다는데決議事項과委員氏名은如左하다고(文川)

◇決議事項

一、各部落에青年團體를組織키爲하야郡內青年運動의統一을期할일

一、女性運動을助長하며婦人講座를設置할일

一、勞働夜學과社會科學研究所를設置하며此에對한學理를研究討議할일

一、小作及農民運動을助長하며明孝半島의島民及明孝、鶴山近海의漁民을積極的으로後援할일

一、朝鮮產業株式會社의非行을徹底히調査할일

一、地方團體聯盟會를本月二十一日에本同盟事務所에開催할일

◇執行委員

成錫熙、朴憲榮、全澤滿、孫相勳、朴錘宗、李正八、孫潤寬、申承勳、金秉洛

◇常務執行委員

成錫熙、朴憲榮、金秉洛

發動機漁業解禁運動

同業組合組織

咸南明太漁業에大威脅이되던發動機船手繰網의漁業을道로부터禁止한바에對하야는本報에이의累報한바어니와元山港을中心으로日人商業者는該禁止命令을不法處分이라하야大히憤慨하는同時에當局에對하야猛烈한解禁運動을繼續하던中이며今般

自由鍾

◇投稿規定◇ ◇一行十四字二十行以內 ◇本社는氏名內容을 ◇「自由鍾原稿」라皮封에朱書할 ◇投稿歡迎◇

學生동무들아

◇新年勞頭에먼저동무들의健康을비나니健康한腦의所有者는健康한사람이라는다이鐵案을부머잇지마러라況是우리는무거운짐을걸머지고잇는學生이아니냐?二千萬民族의企待가모다우리의게잇단다이얼마나重且大한짐인냐?筆者도學生인한사람으로內賓勞頭에滿腔의所懷를참을수업서이에東亞日報自由鍾을빌려滿天下동무들게말하고자한다

◇동무들아?부대새精神새勇氣를가지라그러고또순한努力과勇敢스러운氣概로泰山이라도뭇질으고大海라도決하자舍者의不能이엇지有爲한사람의게만限한일이겟나냐?우리도能할것이다

◇동무들아?우리의앞길은넘우나險하다嚴寒에秋霜갓흔不時의災難과大洋에暗礁갓치突發하는障碍가頻頻히우리를試驗하려한다만은우리는그것을能히이길만한決心이잇고忍耐가잇다엇지두려울것이겟느냐?忍耐는運命에克한다는「칸벨」의金言을잇지말고자우자腰間까지그러고凱旋의북소래들일때까지

◇동무들아?우리의압길은밧브다一萬四千方里의無窮花동산에蕭條한가을消息이들인지오랫스니멀지안은將來에乘長驅의勢로몰아올搖落한嚴冬이잇슬것은嚴然한事實이다엇지晝夜兼行의努를앗기겟느냐?오갓準備를遺憾업시하얏다가十年을간궐이陽春의前提인嚴冬을能히이길것이다

◇동무들아?團結은힘이다赤身만남은우리의處地에잇서서는더욱必要를늣기게되는唯一한武器이다구든團結의압헤엇지敢히抗敵할수잇겟느냐?다만勝利의旗人발이휘날일것뿐이다그러나이제까지의우리는조흔열매를맷지못한것이잇다보라專門學校學生만으로組織된學生會가그일흠은잇는지오랏스나그事業이무엇인지를알기어려우며昨年여름에朝鮮學生科學硏究會가卽今消滅中에잇슴뿐이다아!團結하자살이잇는동무들이가고된이한아올이기는것은衆不敵寡의常理이다萬一一當日하는무엇이잇다하면이것은常理에벗나는例外로안이볼수업다

◇滿天下동무들아!오호로付托할것은乙丑年동안에畢사도疲弊하야진우리의社會狀을이르켜보아라感想的追憶으로風을助長하는感이不無하다만은넘우나엄청난일만이다過去를回想한다만追憶的事에滿誤하는거지에가道路에徬徨하는것이무삼業範인가改造의缺陷은더욱甚하다錦한制度의天災는이무삼責任이냐?가는것을볼때에우리의覺悟를爲하야는그比例로重하야가는責任을늣기여라西伯利亞北滿洲에出稼하는白衣民族은남의나라에서植民政策으로移民하는그것과는性質上다르나毛骨이悚然하다살을에아?나라에서二千萬民族의企待하며悲願하야바리지말자동무들아?

(水村孫生)

榮州鐵友團創立

慶北榮州邑內에서는從來로旣成된青年團體가업섯슴은아니지만은그精神이衰退함과事業의微微하엿슴을一般이遺憾으로思하던바去一月六日午前十一時에當地無産有志靑年十餘人이榮州靑年會舘內에모하여鐵友團을發起하야出席者一同의贊成으로創立總會를열고發起人代表로金墳氏의趣旨說明이잇슨後에宣言과綱領을通過하고任員을選擧하야團所는臨時로團員中權永三氏의現住所로定하엿다고(榮州)

◇委員

金墳、金楗、申鉉均、權泰仲、朴勝璉

李舍音의橫暴

事實審查 威務이라告訴

忠南保寧郡熊川面大川里李喆榮이란사람이本報支局長金應時氏에게李某舍音의非行에對하야事實審查를請求하엿다는바其內容은前記李喆榮의小作權을無理하게移動한것이라하며其外에도李某는小作人에게여러가지不正行爲가만흠으로一般의怨聲이자자하다더라(保寧)

水災救濟寄捐

莞島郡山里서

全南莞島郡靑山面池里에서는昨夏水災罹災同胞를爲하야洞民一同이左와如히捐義하엿다고(莞島)

金十二圓五十五錢

麥二石九斗八升

一年間七萬餘圓

咸興郡의酒稅

大正十三年九月一日부터大正十四年八月末日까지一個年間咸興郡에서醸造한朝鮮燒酒及日本淸酒의總計가六千九百二十三石八升七合七勺이라는데此稅額은七萬九千三百九圓二十八錢이라하며酒類別과稅額別及釀酒所在地는如左하다고(咸興)

◇朝鮮燒酒

釀造 六六八一石六一

稅額 七三四九七圓七一錢

◇日本淸酒

釀造 二五二石六七七勺

稅額 五八一一圓五七錢

◇釀酒所

成興 興北

上岐川 連浦

川西 雲田

朱地 西退潮

上朝陽 北州洞

西湖

大救殖產組合

長淵에서組織

黃海道長淵郡大救面은本來貧面으로金錢의融通이甚히困難함을遺憾으로思하야그곳有志諸氏의發起로大救殖產組合을組織하고資本金五千圓을出集하야各面民의不便한融通을圖謀하기로하엿는데當日選定한任員은如左하다고(松川)

◇任員

組合長金相鐘▲監事李桂秀、安京化▲理事趙常根▲書記林允英▲評議員長金永允▲評議員十名

文藝硏究白洲會를創立

去九日瑞山서

文藝를健全히發育코저하는目的으로瑞山에서有數한靑年數十人이自然이會를組織코저지난九日市內幼稚院에서創立總會를開하고萬般의事項을議定하엿는대同日午後八時부터會員의作品發表會를開하엿스나時間關係로會合을未了하고繼續開會키로하엿다고(瑞山)

竹細工講習會

二個月間瑞山서

忠南瑞山郡은竹材產地로竹細工에從事하는者가不少하나그技術이不足함을慨歎하던바瑞山森林組合에서는竹細工專門家를招聘하야客年十一月十日부터二個月間泰安、南面、大山、海美四個所에서講習을한다고(瑞山)

衡平에서衡平을警告

金泉正衛團서釜山衡青에

釜山靑年會와釜山衡平靑年會와握手한後瀛洲俱樂部와對抗하야紛糾를이르켜왓슴은新聞紙上으로一般이周知하는바어니와압흐로도그와갓치繼續하면結局運動前途에큰障碍가되겟슴으로去九日午後八時에金泉衡平正衛團에서는幹部會를開하고愼重히討議한結果左와如한警告文을釜山衡平靑年會에發送하엿다고(金泉)

◇警告文

我等은屢百年동안非人道的壓迫下에慘切히呻吟하고잇섯다이러한沈痛한恥辱을雪하기爲하야正義의旗幟를들고全國衡平同胞와함께大聲疾呼로階級戰爭에나아가는今日이다 이運動이아즉時日의尙淺으로陣容이堅固치못한反面에는무섭게도銅墻鐵壁이二重三重으로陣地업시우리等은더욱

衡平四年一月十日

金泉衡平正衛團

釜山衡平靑年會

城川江鐵橋架設

來月부터起工

咸鏡線路中咸興城川江에는于今木橋로서渡하얏는바不便이莫甚하든바今番鐵橋를架設하기로當局에서計劃이成立되야今春二月부터工事에着手할터이라고(咸興)

都草爭議에

同情金送致

慈恩小作會에서

全南務安郡慈恩小作人會에서는方今世人의耳目을놀내는都草爭議에同情하야金錢二圓을救濟하고都草小作人會事務所로送致하엿다고(木浦)

道評議員辭職

道廳移轉問題로

江原道春川道評議員南相鶴氏는今月八日附로辭職請願書를道當局에提出하얏다는데其理由는客年十二月二十四日道評議會時에道廳移轉問題가提議採決된結果로郡民大會에서열게되야自己는春民에게對하야未安하다는意로提出하엿다고(春川)

百五十萬圓

本年度咸南預算

大正十五年度咸南道豫算은百四十八萬四千六百餘圓으로昨年度百四十四萬九千六百圓에比하면三萬五千餘圓이增加되엿다고(咸興)

密陽煙消總額

◇五萬四千八百餘圓

慶南密陽煙草元賣捌所慶北南道營業所에서

安城金融經濟

十二月中概況

安城邑內湖西銀行調查에依하건대客年十二月中當地金融經濟概況은本月은收穫이終了되고納稅期、歲末決濟等關係로穀物出廻가盛旺할것이나米價低落의關係上大地主의米穀放賣가稀少하고一方으로降雪이頻頻하야車馬通行이甚히不便하야出穀이豫想과갓지안코今에安城驛發荷의狀態를見하면玄米九百九十八噸正租五百九十六噸으로正租로換算하면約二萬二千石이오此外에大豆十二噸、牛皮一萬五百斤이잇서外에此에要한荷爲替資金二十六萬圓을要하고移入品側은農際에達하야此方面에金融이頗히繁忙을呈하엿고移入品은吳服雜貨、絹綿布、海產物、紙類、日用雜貨、石油、煙草等이中에貸入이影多하야貸行이好況으로同銀行의總着取立爲替는本月中取立額十六萬圓、未取立七萬五千圓에達하엿다此는鐵道開通後顯著한增加를示한것이라諸物價는移出入品共히保勢의狀態로前月과大差가업스나다만新穀의米價는穀物關係로非常히暴落되야松葉一駄二圓五十錢、木炭一叭一圓에達하엿다金融移動은此에比하야一方으로民間貸金業者의回收相調임으로同銀行預金二萬五千圓、貸出八萬圓增加되엿다고(安城)

修養團同情興行

聚星座

一行은馬山에到着하야興行中이든바當地修養團의維持困難함을듯고敎育을獎勵하는修養團을補助키爲하야去八九兩日間朝鮮日報及本社馬山支局後援下에서議論한結果同情興行을大盛況裡에서開演하엿다는데聚星座一行은馬山에이를때마다馬山各團體에對한同情이多하다고一般은稱讚하다더라(馬山)

東北地方

◇德寄委員會 德源靑年同盟에서는지난九日赤田面外牛里同會舘에서執行委員會를開催하고今後維持方針과事業等을討議한後常務執行委員의互選과總會에서一任한宣言綱領을制定하엿다고(元山)

◇宣言綱領(略)

◇常務執行委員 康基變、朴成亨、元基德三氏

◇勉勵少年會定期總會 咸北淸津府浦項洞勉勵少年會에서는去月二十日下午七時에禮拜堂內에서定期總會를열고

湖南地方

◎務木勞農聯盟總會 木浦에잇는務木勞農聯盟에서는去十日午後八時에木浦勞働總同盟會館에서第二回臨時總會를開催하엿는데曹克煥氏司會로務農運動의方向及組織에關한件에對하야長時間討議한結果左와如히決議되엿다더라(木浦)

◇決議事項

一、方向及組織에關한件

務安은務安農民聯合會、木浦는木浦勞働聯合會로分立할것

一、實行委員으로金鍾洙、徐東五、趙尙淑、金海龍、金尙淑、諸君으로選定할것

沙里院生死統計

黃海

道沙里院面內昨年生死統計를보면出生者가合五百八人이며死亡者가合三百三十七人이라는데그中에는自殺한것이三人인바大正十三年度에比하면出生은十五名이增加되고死亡者는二十七人이減하엿다고(沙里院)

◇地方短評◇

◇訂正 大正十四年十二月二十一日本報地方面에「地方發展을阻害하는穀物仲商의奸計」云云의記事中尹日炳에關한事實은相違가有하얏기에訂正함(江景)

◇裡里● 警察部某飜譯官은某新聞記事를飜譯하는데「정복」(正服)을「정복」이라는文句를 뭉서 북(金北)이라하엿다든가!곳지안어도所任地가全北이닛가

◇淸安● 忠北曾坪郵便所에서는去十二月頃에交換한大晦年賀不用印을木月一日부터는繼續使用하다가發見을當하엿다고그건좀問題인데

◇淳昌● 淳昌公立普通學校內女子夜學部에서出抗이라는好生이夜學에를갓더니某刑事夫人과生과는한冊을어갓다고夫人은刑事夫人과짝하야工夫를못하게되니선生은여석아!하엿다고讀者가憤慨

裁判所受理件數

昨年中元山서

元山裁判所에對한昨年中의事件數는朝鮮人前年越十四件十五件二百五人、受理千百九十八件千八百六人、起訴十二件二百五十七人、不起訴其他가十四件十九件十一人이라하며日本人前年越二件三人、受理百二件百二十八件四人이라하며外國人은受理七件八人、起訴四件六人、不起訴三件四人이라는바前年에比하야多少增加이나起訴는減少한狀態이라고(元山)

咸南道評議會

來廿二日부터

咸南道評議會는來二十二日부터一週間咸興物產陳列館階上에서開催한다는데評議員은官選議員八人及民選議員十七人合計二十五人이라고(咸興)

咸南煙草販賣高

客年中淸道郡內에販賣한煙草代價는實로四萬九千三百八十七圓二十三錢에達하엿다는데그種類別販賣高는如左하다

敷島	二、四五一、四六〇錢
朝日	三、九一三、二〇〇
鳩	一、四九〇、三〇〇
松風	一、五八五、九八〇
마코	一、五八五、二五〇
丹	一、五四九、七〇〇
刻煙	七八二、三〇〇
長煙	二、九五二、九〇〇
雜種	一、二〇七五、三〇〇
合計	四九三八七、二三〇

右合計는淸道營業所에서一般小賣商에게販賣한그대로의統計인데貸商은또其中間에서小賣商의利를取함으로結局은便化되는金額이一割增加인五萬四千三百二十四圓七十錢이라고(淸道)

배달靑年委員會

全南莞島郡所安面에잇는배달靑年會에서는去五日午前十時에同會館內에서中晚熙氏司會下에第八回委員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고(莞島)

◇決議事項

一、會員加入及退會의件

一、會歌制定報告

◇討議事項

一、討論會에關한件

一、所安學校後援에關한件

一、各里勞働夜學에關한件

一、雜誌社支部에關한件

一、光州青年會館復興策에關한件

海西地方

◇黃海道評議會 黃海道評議會에서는例年과가치黃海道評議會를客에서第六回黃海道評議會를오는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同日十一日가지七日間開催하리라는바그準備에매오奔忙中이라고(海州)

義勇團素人劇

高原義

勇團에서는農閑期를利用하야農民을慰安하려고素人劇을組織하여農村을巡廻하든바지난六日에新灘에來到하야大盛況으로興行하엿다는데觀覽人士의同情한金額은如左하다고(新灘)

▲朴子七、李道彥、趙國元、金元浩、無名氏、朴昌敍、朴根燮、張敬煥各五圓(以下略)

關西地方

◇南浦信一商會 鎭南浦信一合名會社에서는去十日午後二時에龍井里物產客主組合內에서第二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十四年度下半期決算報告에對한承認이有한後에私財二萬圓增資案을付議可決하고任員選擧와特權을付與하야整理는役員에게特權을付與하야整理하기로決議한後同四時에閉會하엿다고(鎭南浦)

兪博士歡迎會

多年海

外에서醫學의功을積하야獨逸醫學博士日本醫學博士의學位를受하고今般故鄕인京畿道安城으로錦衣還鄕한兪日濬氏를爲하야去十日當地明月館에서安城記者團主催의歡迎會가잇섯스며又翌十一日午後七時安城靑年會主催로永興館內에서盛大한歡迎會를開하고主客의歡談으로同十二時에閉會하엿다고(安城)

金在七氏의美擧

原州

郡所草面長陽里에居住하는金在七氏는該同里의區長으로多年間勤勞하엿스나報酬를不要함으로一般이稱頌不已하든바昨年中旬부터內인長田岩洞、大和地、下道谷前記三個所에다勞働夜學을設立하고該費用全部를擔當하야自家에서敎師를招聘하고該洞里에在한無產家子女十餘人을募集하야亦是學費를全擔하고教養을식힌다고(原州)

畿湖地方

◆仁商議評議員會 仁川商業會議所에서는旣報와如히昨十一日午後三時부터同所會議室에서評議員會를開하고左記案을附議한後四時半散會하고同五時부터八阪樓에서新年宴會가有하엿는데當日來賓으로는橫田仁川府尹以下數十人이엇스며當日附議案은아래와갓다고(仁川)

一、朝鮮鐵道未成線速設에關한件

一、大都市計劃에關하야調查委員組織에件은府當局에要望할것

一、祖峴驛名改稱에關한件

一、日本長崎商議로부터京城商議에移牒한大連朝鮮長崎間定期航路一部變更要望의件

件

通部會에附議하기로되엿는데그中에第二案인祖峴驛名改稱에는當局에서그名稱에對하야「仁川中央驛」或은「上仁川驛」「新仁川驛」等의改稱案이有하엿고그보다도仁川은全線을通하야乘客及貨物이一二位에居하는大仁川임도不拘하고仁川驛이나祖峴驛의構造가너무貧弱한즉이를速히改築할件을아울너鐵道當局에要望하자는論議가有하엿더라

謹賀新年

安東縣

安東縣朝鮮人會長 李泰鉉

安東縣裕政號 主 張驥植

安東縣二番通 冷麵屋 金贊杜

穀物委托販賣 俞敏亨

安東縣六番通九丁目 ㊀商業運送部 主 黃龍秀 電五六六番

安東縣三番通六丁目二番地 特客親切 漢城旅館 主 張彩月

安東縣大和橋通七丁目一番地 親切可嘆 京城旅館 主 金德仁

安東縣 金龍商會 主 金容鎭

安東縣永昌號 主 文鳳祚

安東縣二番通五丁目 白米商 金正芳 金龍國

安東縣下川堀町 泰誠堂病院 院長 李昌栢

滿鐵病院醫師 李駿鎬

安東警察署 金尙玉

安東警察署 朴海甲

安東縣 信益商會 主 金炳浩

安東縣 三興公司 主 金應俊

安東縣高麗公司 主 邊志明

安東縣義昌精米所 主 黃思謙

安東縣 安承浩

安東縣四番通八丁目 白米商 韓應連

安東縣六番通七丁目三番地 旅館組合指定旅館 各團體 漢陽旅館 主 白毓洙

安東縣六道溝 安東金融會

安東縣下六道溝 安東朝鮮人共濟會

安東縣四番通七丁目一番地 旅客親切 新興旅館 主 金 [illegible]

安東朝鮮人共濟會勞働部一同

安東縣六番通 精米業 大昌公司 主 朴六琮 金大熙 電 五六番

下六道溝 安東商會 主任 共濟會勞働部長 宋國煥

安東縣朝鮮人會評議員 宋義根

安東縣 玄璣閏

ClibPDF - www.fastio.com

小說 月子와時計

尹白南

三

房門을열고「집」이드려와서 뒤를닷치다 웬일인지그신이업시방것도아니한다 붑상도하지아죽도二十二歲란시퍼런케젊은몸으로―안해를먹여살리느라고몹을조리지 外套도한벌새로만들어야하고―장갑 하나가업다

「집」―혼안해를불쌍히보고잇다 그런데그보고잇는눈의뜻을암만해도읽을수가업섯다 그래서안해도마음이 耆然해졋다然한것도아니요 눈내것도아니요 수진는것도아니고미워하는것도아니다意外라고할수밧게업는顔色이다 그런데더이업는얼골로 다만안해의얼골만무서럼이보고잇다

「에일럼―」은 헤―불연듯떠나서知便업흐로 숲살닥어가서마커도렷다

이것봐요 여보웨그리우남의얼골만그러케보시려

「에일럼」는 목소리를 흠혀서말을니엇다

여보나는머리털을 비여팔앗다우 크리쓰마쓰라구 하는매당신에게 선물을 사드릴돈이잇서야지 생각다못해그랫소 그래두여바요 머리야곳또 자랄것이니外 서운하게 생각말어요내머리는 쉬자란다우 자여보「헨피―크리쓰마쓰」를 불너주어요 비비 놀내지마우 그야참흥거운―혼人들나는선물을購求할것으로사왓스니까

무엇? 머리털을 비여서?

「집」은이마음내기두려워하는것가치했다「집」―는房을한번휘둘너보고나서 업바진사람가치 그러면 머리털이 업서젓단말이지하고무릿다

무업이러케 들너보? 팔엇단말예요 팔엇스니간업서젓지요 여보오늘은 크리쓰마쓰의 전날밤이아니우? 그러니까다―모두家庭해주우비당신을爲해서현일이니까 자―우리저녁이나 자십시다

생속에서생을본듯이넉이업는「집」―은선뜻精神이도릿다 그는화 안해를씨여안엇다

「집」―은外套주머니에서조희에싼것을 내여서 테―불우에록던졋다

마누라어겁 살려바보면 내가치욕업이배진모양으로서이잇든야닭을 알수가잇슬터니

흰손스가랑을 열새게 놀녀서巳을풀고 조희를펏다 조희를제치고보자 에그머니―하고 깃분외소리를 지르더니 별안간그소리가女子의「히쓰테릭크」의부루가여우는소리로變해바려서「집」―이달내고 말니기에 쌍둥홀니게되어버렷다

그두 그럴것이다 조희속에는그빗(櫛)……오래동안 에원하―가 뿌로―드웨―의어느陳列窓속에그것을發見하고침을흘니던 그한벌의빗이다正眞玳瑁빗에다가잣에寶石을박은·드러마시고싶흔빗―以수은해보라도할수업는그칠칠한머리쪽에그것을쏘잣드면 얼마나보기조왓슬고 더구나갑이호독하게빗사서그것을삼수잇스리라고는꿈에도生覺하지못하고 언제던지熱中하듯이생각해오든것이 쑴속가치门上쫌속에기어드리오기는했다―하―왼수에천재에쉬집머리가잇서야지쪽이잇서야지―그래도女子다 안해는그빗을가슴에씨어안으며 눈물에어린눈을들고「그래도여보 내머리는엽게자란는머리라우!하며 밧곳이웃엇다

그런드니 이번에는火傷당한요양이떡기模樣으로 호둑호뚝뛰며「아아참아아참」하고부르지졋다「집」―에게아즉도 그선물을아니뵈엿군 안해는손을펴녀서그우에선물을 올녀노코쇼을재처쉬며 男便앞헤내미러밧첫다光彩업는貴金屬은 熱情에타오르는女子의맘의反射를밧어서찬란한光彩가잇챈것가치 뵈엿다

「엇덧소여보 비줌―― 맵시나뵈우?이것을사랴고 밤이부릇도록돌리다녓다우 자인제부터하루에百번이라두時計를쇠내보서구려 자어서내요時計에다다려봅시다」 그러나집―은時計를내여놋타고도안코 寢床우에헐석도러눕더니 두팔로머리를밧치며쓰되웃음을歎息석거우섯다

「여바 엘리―선물니아기는當分間느어두어……흥…나는金時計를팔엇서그빗을사다주고십흔생각에―자―저녁이나먹어보세―(完)」

現詩壇

金岸曙

◇…一

◇「新年新作」이란新年號가郵便局事務員을괴롭히다못하야 臨時配達夫까지 출오게될때에는 各書店의致行帳都會計는 말할것도업스려니와 定期未로 판매바은듯이不常時에는 存在조차認定치아니하라든 新聞雜誌計에서까지 一年都合計를 쌔아가지고 年終號마유막이를하느니 新年號紙面을 꿈일대로꿈이라고드니 새삼스럽게流行이란 偉大한힘이라는생각을禁할수가 업습니다 이러한판에 바아笑코 하지아니하면아니되는年中行事的傾向에對하야 나는 이러니저러니하는異議를提出하랴는것이아니고 잇서도그만이오 업서도그만이란생각을가지는同時에 藝術이란政治와民衆運動과는 달라서 大多數의讀者를가지고는 엇더케될것이아니라는말하마머를하여둡니다 그러고 藝術에는―勿論엇던意味로는 그絕對量도心要할것입니다―偉大한作家의 偉大한個性의表現하나만으로도 넉넉하다는말한마되서지하면 滿足입니다

◇바로말이지 以수의文壇을四五年前의 有耶無耶的文壇과比할때에는 엄청나게進步하야해가거듭되면거듭될사록 現著히作品의分量이增加되야 日刊新聞의文藝欄이定期刊行物에 선보만큼한發表가잇습니다 엇지햇든이러한 現象에對하야慶賀하지안을수가업슬것입니다 만은그發表된作品의全體를 年終마유막이로 난호아보다하면그品의 大多數가數字的 表示엔어떠할것이겟습니까 그만한作이오質量的表示는 엘에하나이믈을다하면 내가말한「蹶起」의뜻은七八割이나滅하게되야「知慧의詩人」「베르렌」의말을빌으면 Restis Literature 으로 自紙張에 적어노흔文字에 지내지못하리니 寒心하다는말은詩수잇다하면 實로이에서 더寒心한일이 어데잇겟습니가

◇이러케말한以上에는必然記錄示를보여야할 責任이내게잇습니다만은 不幸히文壇 一年致賀帳이라할刊行物들을 所有치못하야 抽象的論議로 밤에업는自足을 가지려하거니와 如何間적히이 方面에定意를 게을니하지아니하는 同好人士는나의말한바에 가른생각을가질줄로압니다

◇이제그內容에들어가그리하도만혼數量을表示하면서 엇지하야質量로는 七八割이 滅해지느냐하는것을 檢討해보면이에는여러가지原因도 잇습니다만은原因도되고 結果도될만한것은오직 두가지가잇습니다

一, 作品을眞正히 鑑賞할만한批評者가업는것

二, 作者의머리에는 藝術的으로無知인것

외두가지理由이면大體로보아나의말이 正鵠을얻치아니하엿슬줄로압니다

한데이곳에서 나는表題의뜻한바와갓치 나의말은全部詩歌에關하야서말하는것이오 다른部門에는밋지아니한다는 ―言을하여둡니다

◇엇을떠나서 血이 무슨意味를가지며 詩歌의本質이라고하는것보다도 大膽의暗示的이면詩歌요 說明的이면 散文이라는觀念도모르는 新聞雜誌의編輯者가 무슨詩歌의眞正한鑑賞을할수가잇겟습니가 그러니가自然히詩歌가나하우 뜻이나되는것이면 詩歌이거나하는생각을가지고 活字라는魔醉眼을입혀노흘만케別수가 업슬것입니다 이러한때에 第一 者의鑑識眼을가진批評者가잇서 이것을眞正하게論評해주엇스면 조흥련만은論評하야 그렇듯한人士도입잇고못잇서도 잠잠하고마니감사록詩歌의버아새도 나지안는잘마석바한 토마文化의羅列과餘白만흔文字가 늘어갈것은分明한事實입니다

◇이에對하야 編輯者와作家라는이에게賞然히疑問이 잇서야할곳에엇지하야 疑問은가지지못하엿는가하는責任感은 贊잡아말하는것보다도 詩歌란무엇이냐하는文獻이 洋의東西와時의古今에적지안케 만하니심심破寂삼아서라도 한番읽어보아詩歌란엇더한것이라는 大體의뜻이나알고 自己의各各責任을다합소서하는말을 듯이고십습니다

◇其한것에 아르려서는文字로唯一한表現手段은 文字의엇더케排列되는것과 意義조차몰을것을「詩歌」라는 이름아래에發表하야 苦笑를 禁치못하게하나아모리 過渡期에서는避할수업는現狀이라고한들 過渡期그것에게 그罪가容易히轉嫁되엿슥할것가

◇이것은무엇보다도責任에對한懇切한생각이 업기째문입니다커어도 責任感을가졋다하면깁히接觸하면서 親密해지는속에반드시 무엇을 찻게될니다 眞正한사랑으로 臨할때에는모든것이洞察되며 그속에서잇는존은 being이 스사로 發見되는法이다

◇나의말이 대단히挑戰的이엇습니다 만은詩歌를사랑하는맘을가진이로야 누라서 아려한말을하지아니할수가 잇겟슴닛가如何間이것은 지내간一年이라는것보다도 몃해동안의作者의無知와 編輯者의無責任으로냇진말하자면 업짐은붙가든지내간일입니다 이미일이過去에뭇혓스니이러이러하다는 말을막이나하고말거니와 이제부터所謂譯詩라는것에對하야 한마듸하랴고합니다

◇嚴正한意味로보면飜譯이란散文이고韻文이나할것업시 都大體不可能합니다 이不可能한것을可能케하랴은 무엇보다도還當한譯者의 個性그것에게맛길수밧게업습니다 譯詩에對한내自身의經驗으로 말하더라도勞力만만코效果업는것이 그事業이어습니다 西洋의肉體에朝鮮옷을입히는 不自然도不自然이려니와 어느便에서어느便을본다하더라도 勿論볼맛이적은것입니다 하데여긔에다가半西洋半朝鮮의內體(誤譯)에 朝鮮옷을내려덥혼것이 昨年一年의譯詩엇스니 말할것이무엇이겟습니가 假令해이론의詩歌의思想을朝鮮文字로 와라고하면무엇보다도 作者의性格과個性이쌔어론의아름은 못된다하더라도쎄이론이즘에는 共鳴될點은잇고서야할월입에不拘하고 이런難事業을敢行하나 투가러가도되지못하고 그아말로白紙에적어노흔文字밧게 아니될것입니다 나의意見으로보아서는原詩를읽을대로읽어 잘消化하야朝鮮式思想을만들은뒤에 朝鮮옷을입히는것이엇덜가합니다 다시말하야 譯者가創作무드를가지創作하여바리는것이 가장 조흔일이아닐가합니다 勿論이에는原作者의 個性과譯者의個性이 似近한點에서 비로소可能할것입니다

◇…二

이제부터는 비록그것이不滿足하엿습니다 過去에對하야虛에지냅지는물으는『明日에야』하는未來에對하야 希望을말하는것이 順序임니다 未來에對하야서도 두가지希望이잇스니

一, 鄕土魂을 닷글것

一, 言語를醇正히할것

임니다 우리들은너무도自己의固有한鄕土性이란것을 니저바리고 남의것에心醉하야 남의것에對하야 너무만흔代價를支出하면서 그것을消化식히지도아니하고 그대로버서것을삼는傾向이잇슴니다 藝術의天地에는進化의 原理가疑心될만합니다만은進化의原理로보아도 物件이란 한곳에서 다른곳으로옴겨가면 반드시그곳의風俗과氣候에適合한것이 되지아니하고는 生存을保全하지못합니다

◇大膽로細正을基本잡고詩歌라는것을볼때에 西洋의그것보다東洋의그것이 情的抒情的인것은무엇보다도 西洋의詩歌에는 아모리抒情的이라는理智의날카롭은빗이보이나 東洋의詩歌에는 理智가업는代身에어데서지感情의 音인듯한맘이보이는그것하나만으로도잠작 할수인숨에不拘하고 우리는우리의純正한抒情을바리고 만히西洋의理智的抒情을 讚嘆하엿슴니다 그리하야 無理하다고할만큼西洋의 理智的思想에朝鮮의옷을입혀노하 엇개가울리고허리가굽어집과가튼방이 보이지아니하니 全體의調和와陰影이缺乏하게되도 엇지할수업는일일밧게업슴니다 타고아의偉大한詩歌에 印度의自然과思想의背景을除한다하면 그속에는그偉大가업서질것과 마찬가지로朝鮮의 詩歌에서朝鮮의自然과思想의背景을 도라보지아니한다하면詩歌로의 價値가잇겟슴닛가 누구나 우리의詩歌를읽을때에勿論그러치아니한것도 잇습니다 만은大多數의作品에는어섬버섬한맛이 아니하는 생각을禁할수가업는것은 朝鮮魂이라할만한鄕土性을 等閒히한外에인줄로 압니다하기는過度期에잇는것만큼 外來思想의輸入에汲汲하야 自己의것을니즌바리기도쉽으리라고 할수도잇슬것임니다 만은眞正한朝鮮의詩歌를나흐랴면 언제나鄕土性인朝鮮魂을 이저바려서는 아니될것이고 이것이또한朝鮮魂에새롭은詩歌를樹立할救援의 길인줄로압니다 最近에와서이러한點에 注意되는 詩歌가 듬듬기는하나업마큼보이게되엿슨 매단히깃분일입니다 그러나그것으로써 樂觀할것은아님니다 웨그런고하니 樂觀이란모든것을 조처못한곳으로잇글가엽은것만큼 나는悲觀論者되기를조금도 부끄럽어하지아니합니다 옷지말아줍시요 悲觀에서모든것은 그正路를찻게되지아니할되가?

◇言語와詩歌! 나는驚嘆업시이말을할수가업습니다 우리는言語라는 神聖한것으로말미암아서思想과 感情을表現할수가잇지아니함닛가 이點에서言語란하느님이며 하느님은言語라고까지생각하고십습니다

◇世上에는詩歌에從事한다는人士中에도 言語란表現의手段에지내지안는다는생각을 가진이가잇슴니다 그러치안슴니다 肉體를떠나서精神이 잇슬수업고精神을떠나서 內體가 이슬수업는것과마찬가지로 詩를떠나서는言語가업슬것이나 言語에담긴言語그自身이 곳思想이며感情이며 目的이며價値임니다 하야이것은 떠나서는存在로어데서지든지 떠나서는存在할수업는것입니다 그러기에아름답은言語가되고말아서 아름답은詩魂이 엇분言語가잇슬수가업습과 마찬가지로詩魂이 엇분곳에는 아모리아름답은言語가씨어지라도 어늘수가업스니言語그自身이詩歌가아니고 무엇이겟슴닛가

◇只今까지의詩壇에는이러케神聖한言語를 한부로臨待해온傾向이엄지아니하엿슴니다 言語란修飾해야할것입니다 저所謂技巧過重者의 쓰는適重에對하야는 내自身도公正을잠을수업슬만합니다 만은여과에는技巧過重者의 그러한뜻이아닌것은全體의뜻을보아 짐작하여주실줄밋거니와 한마되무말하미를 말대로일삼는것을 잡삭하는 것이라고解釋하여 주엇스면대로解釋하는것이 올흔일인줄암니다

◇마즈막으로 이야기하랴는것은詩歌에는 別로히目的이잇는것이아니고 詩歌그自身이獨立的目的과價値가잇다는것임니다 近來엇던部分에서는詩歌를 一種宣傳手段으로 使用하라는이가잇서 疲人히興奮的詩句를쓰니다 詩歌는興奮도아니고感想도아니고 어데까지든지感情을生命삼는 忘我的悅惚그自身으로 悅惚을떠나서는詩句는成立되지못합니다 만일이밧게도詩歌라는것이 잇다하면그것은詩歌에對한冒瀆으로「베르렌」이 나온바 Restis Literature 의白紙張에서어노흔文字밧게된것이 업습니다

◇이런主張(?)의詩歌를新聞雜誌文藝欄에서볼수가 잇스니이것은所謂 新傾向이란 프로詩歌라는것입니다이런것을삼아서詩歌라하는 도로혀問題를삼는듯한弊가 잇슴은지몰으겟습니다만은 엇더케나그것이詩歌이어든 불숙두름다린가는

『이놈들 부르조아야―』

올타 마자다

나는프로다―

이떠위것이나 다시더 무엇이러한말할것이 못된다주정방이의욕說이아니면以上 이것을詩歌라고볼人士는 업슬것이다

一九二五、一二、二二、

栗谷高山石潭 九曲時調

이時調는李朝의巨儒 栗谷李珥先生이 老年에下居한黃海道海州高山의景致를그린것이다 勿論漢文의色彩가아조업는것은아니나 當時에그처럼 漢文을崇尙하든時代임에도우리말의本色을이처바리지아니하고 그純한詩를읊은것은 그의思想의一端을엿볼수가잇는것이다 더구나그詩自體도自然하려니와景의비진九曲과春夏秋冬을따라제각금달은景概를 그린것은可히齷齪上添花라할만하다 다음에序曲과九曲 都合十曲을소개한다

序曲

高山 九曲潭을
사람이 모르더니
誅茅卜居하니
벗님네 다오신다
어즈버 武夷를想像하고
學朱子를 하리라

一曲(冠岩)

一曲은 어데메고
冠岩에 해빗친다
平蕪에 내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다
松間에 綠樽을놋코
벗오는양 보노라

二曲(花岩)

二曲은 어데메고
花岩에 春晩커다
碧波에 꽃을씌여
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勝地를모르니
알게한들 엇더하리

三曲(翠屏)

三曲은 어데메고
翠屏에 닙퍼졋다
綠樹에 山鳥는
上下其音 하는데
盤松이 受風하니
녀름景이 업세라

四曲(松崖)

四曲은 어데메고
松崖에 해넘는다
潭心岩影은
온갓빗치 잠겻세라
林泉이 깁도록조흐니
興을겨워 하노라

五曲(隱屏)

五曲은 어데메고
隱屏이 보기조희
水邊의精舍는
蕭灑함도 가이업다
이中에 講學도하려니와
詠風吟月 하리라

六曲(釣峽)

六曲은 어데메고
釣峽에 물넙첫다
나와 고기와뉘야
더욱 즐기는고
黃昏에 낙대를메고
帶月歸를 하노라

七曲(楓岩)

七曲은 어데메고
楓岩에 秋色조타
淸霜이 엷게치니
絕壁이 錦繡로다
寒岩에 혼자안저
집을낫고 잇노라

八曲(琴灘)

八曲은 어데메고
琴灘에 달이밝다
玉軫金徽로
數三曲을 노래하니
古調를 알사람이업스니
혼자즐겨 하노라

九曲(文山)

九曲은 어데메고
文山에 歲暮커라
奇岩怪石이
눈속에 뭇쳣세라
遊人은 오지아니하고
볼것업다 하더라

咸平

孫佛石倉里 崔炳述
孫佛冬岩里 金炳寅
海保龍山里 鄭寅璐
海保大倉里 尹起炳
外邑龍月里 高光默
朴谷面沙川里 蔡洙巘
朴谷面 鄭大衍
務安公立普通學校 安日煥
羅山市場 布木商 金昌晧
咸平邑內 李光範
大洞面龍城里 淺沼秀次
新光柱川里 金鳳逸
海際面德山里 魯春在 魯龍塾
務安石津面 金琦煥 金禹福
羅山里 羅山醫院 崔昌東
大洞面 事務所一同

咸平郡廳 職員一同
咸平警察署 職員一同
咸平邑內 牟星煥
咸平邑內 張志文
咸平面事務所 職員一同
月也面事務所 職員一同
海保面事務所 職員一同
平陵面事務所 職員一同
嚴多面事務所 職員一同
新光面事務所 職員一同
咸平金融組合一同

孫佛面事務所 職員一同
食知面羅山里 安鍾瓚 安鍾判
大洞面江雲里 吳性根
新光面 金秉燮
新光面月岩里 李圭桐
鶴橋面四街里 權晶淵
食知羅山 安鍾泰
外邑面 事務所一同
羅山金融組合 李裕憲 金洪彬
咸平邑內 司法代書人 張鳳璇
嚴多面 金太一
鶴橋四街里 鈴木繁之助
農業會社 鶴橋農場
湖南線鶴橋驛前 小林運送部 店主 小林吉藏
桂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孫佛大田里 金河永
咸平邑內 自轉車部 權完一
羅山市場 鐵工業及荷車製造販賣 車宮一

ClibPDF - www.fasti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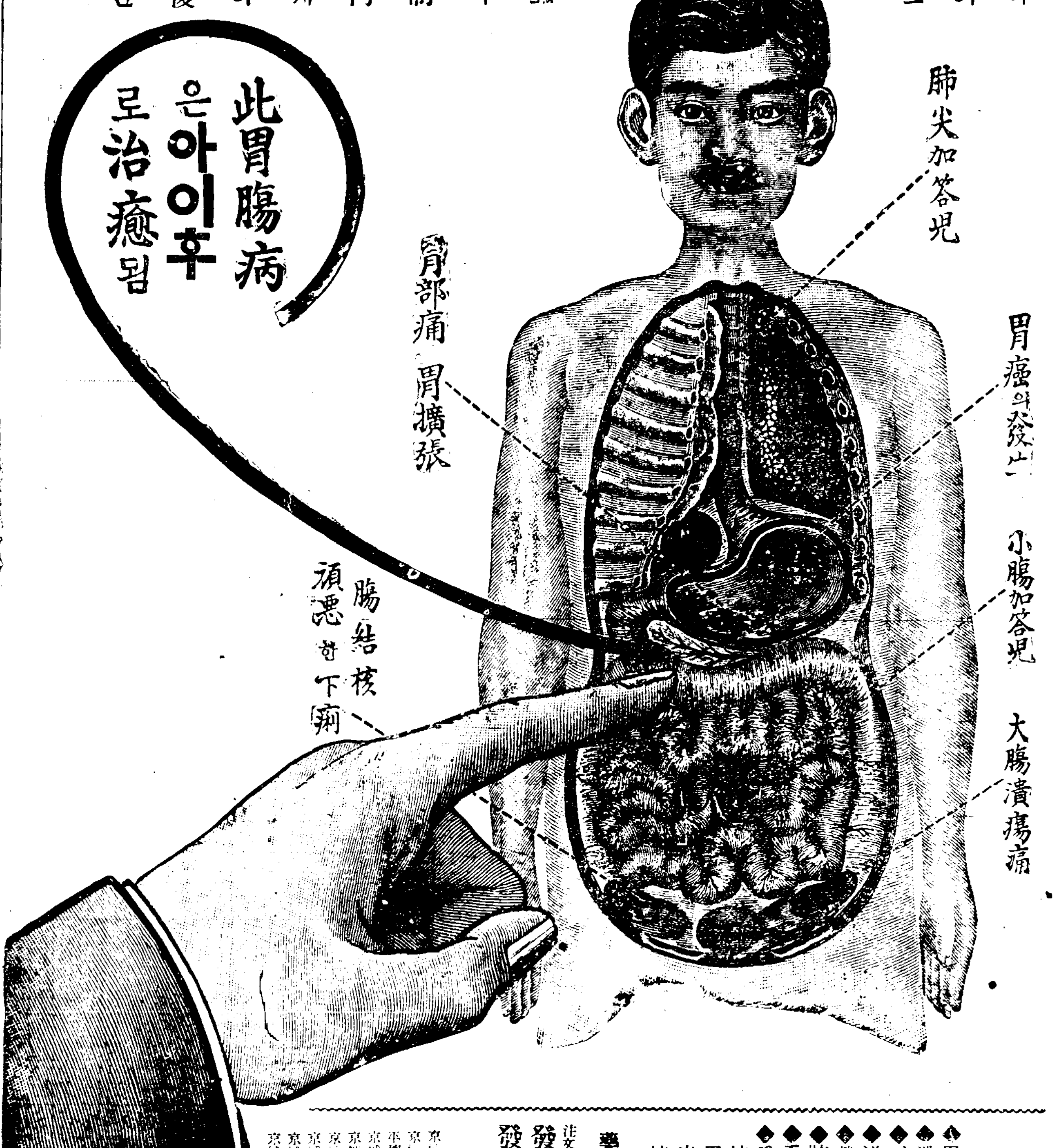
慢性胃腸病을放任치말라

我國死亡率의最大多數는慢性腸胃病이다可恐할、
腸胃內壁에生하는험과傷處를고처이難症을治療하라

사람들은胃癌을두려워하고傳染病과肺病을무서워하나그러나이것이처음에는輕微한慢性胃腸病으로부터생기는것을아는이는적다。

慢性胃腸病이라는것은그의內壁에험이나傷處를生하는것으로여긔에는여간하야서낫지안키때문에身體의營養이衰하야肺尖에故障을起하거나또는험이漸漸크게되야癌腫이나潰瘍으로變하는것이다。

慢性胃腸病에는消化藥이나泄瀉藥으로는迂遠한療法으로直接內壁에잇서서험이나炎症을고칠鎭痛收斂治創의效果를具備한藥劑가必要한것이다。 胃腸良藥**아이후**는가장親切한藥劑로內服後腸胃內壁의험이나또는炎症部에附着하야粘膜을强壯케하고粘液의分泌을減하며。 異常醱酵를防하고腸의蠕動을制하며。 大腸에잇서서硫化水素와化合하야硫化着鉛을生하며。 大腸菌의發生을막고泄瀉를制하야압흠을鎭靜하는故로。 胃腸病者가이**아이후**를內服하면胃腸을健全히하며食慾을增進하며血色을조케하며營養의吸收를佳良히하는싸닭으로體重을顯著히增加하고抵抗力을强케하야服用後直時에健康을回復하야大段한重症이라도特製의一個月分만服用하면반듯이滿足한效果를어들것이다。



胃腸病에는꼭 아이후를服用하시압

◆胃腸病으로食慾不進、가슴답답、嘔氣나고胃가압흐며
◆泄瀉又는軟便으로大便에는粘液에도칙과가흣이석기며
◆배가불너압흐며 방귀가자조나서 픽픽소리가나며
◆滋養物을먹어도더살이찌지안코身體가益益衰弱하며
◆營養不良으로元氣衰하며無力하고顏色이나빠지며
◆肺尖肋膜에故障을起하야熱과咳嗽息喘으로盜汗이나며
◆족음만飮酒나不消化物을먹어도곳泄瀉가나고압흐며
◆重症으로大便에血液膿汁을混出하고胃癌又는傷結核腸潰瘍等의疑心이잇는危險症에는꼭아이후를服用하야根本的治療를하라。 아이후는가장適切한胃腸病良藥으로此等의諸症에特效가잇고可恐할胃癌腸結核肺病等의難症을未然에防止함

藥價（三日半分七十五錢、七日分一圓五十錢、十五日分三圓、四十日分七圓、重症用特製 十日分五圓、二十一日分十圓、三十三日分十五圓、七十日分三十圓 (送料一個十錢)）

注文할人은病狀을記하야郵便爲替나又는振替大阪三四五五番으로送金하오

發賣本舖 大阪東區淸水谷西之町上本町東入 電話東長五六四・振替大阪三四五五 **順和公司**

發賣所 大連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 **順和公司**

各地代理店

京城南大門通り 新井大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木村眞三郎
平壤大和町 森田草藥堂
京城本町一丁目 山岸天佑堂
京城南大門通一丁目 和平堂藥房
京城太平通一丁目 濟生堂藥房
京城鐘路一丁目 模範賣藥社
京城鐘路四丁目 博愛堂藥房
京城南大門通一丁目 共愛堂藥房

大田本町 三枝藥店
大邱府元町 町田回春堂
大邱東城町 鈴本藥局
群山全州通り 神林藥局
群山榮町 沈學允
馬山府都町 岩見屋藥店
釜山辨天町 大黑南海堂
釜山辨天町 藤田大藥房
新義本町 下川文助
全州大正町二 上田藥局
咸南端川 丸子藥房
開城大和町 李文淳
開城南門通 普春堂藥房
水原城外 濟生堂藥房
咸南利原 元春堂藥房
新義州大通 大川藥房
安東縣市場通 井上誠昌堂

門牌의來歷談 (一一)

사람으로의 女子
制度와因習에反旗
─해방운동에당면할일꾼들을양성 새해를마저좀더일을만히하겟소─
◇新女性의主義團體 女性同友會

제도와인습의 무서운힘으로인하야사람으로서의 여러가지면리를일허버리고 뇌옥(牢獄)이나다름업는 가뎡에드러안저남성의 거긔하대를달게 바다오든조선의녀자들을위하야「우리도「사람」이되여야하겟다」「남녀는동등이다」라는칭신으로 녀성단례가만히생겨 낫슴은세상이다아는바이다 그중에위선락원동(樂園洞) 일백칠십삼번디 이층우에 둡다랏케부터잇서차자간과자를 내려다보면서래력을말한는 조선녀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의길죽한문패는 이야기를들어보자

個性에눈떠

모든남성들에반항 「사회와진화하는」 법측을따라 새로운사회를 건설하고녀성을 해방(解放)하는 운동에당면할 일군의훈련과 교양을목뎍하며 이운동에 참가할녀성의단결을 촉진하기위하야 정칠성(鄭七星) 허뎡숙(許貞琡) 고원섭(高元涉)외십여인이나를만들엇답니다 모든남자가우리녀사들을 자긔네의 부속품과갓치 압아오고사회가 그것을 용인하엿스며녀자들자신까지도 그에대하야하등의 반항이업서왓스니 반만년조선력사에 낫타난수만흔녀자의처디가엄마나 비참하엿겟슴닛가 사람으로의 녀자가아니라 안해나 어머니로의 녀자엿스며 주의(主義)와 개성(個性)에산것이아니라 복종(服從)과 굴욕(屈辱)에 울지아니하엿슴닛가 무산사닭으로 녀자는 무슨조건으로 가뎡의「종」이되여야합니가요? 자인한남자들이 오늘날까지 현숙(賢淑)이라하수아비문자로 일천만녀자대중을 참혹하게도속여오지안앗슴닛가 여보당신도 남자되다그러나 이이말에대하아무런대답이잇슴닛가」하며그 기염(氣焰)을토하기시작한다

朝鮮女性同友會

再昨年誕生

지금은회원이칠십녕

경험한이야이를도고서와다는 긔자의말에그는말이 연결로간것이생각난듯키 얼굴에홍조를띄우면서「내자랑한구백이십사년오월이십삼일에 경운동천도교당에서 치음으로세상을힐하야「우아」소리를첫슴니다 원고로인이놀라고 속아살는녀시들이비웃든것이야 발하여무엇함니까 나의당당한일원삼십여명이후은 강연회를한다후은로동부인위안음악회(勞働婦人慰安音樂會)를한다후은또수해구제련합음악회(水害救濟聯合音樂會)를한나각방면으로 활동을시작함에 갓나흔어린녀자라하야나의존재까지 알아주는사람이드믄든 사회에서 차차나에게대하며만흔 기대를가지는것갓틈니다 이에나는매주월요일마다연구반을열어밥서읽년동안이나 계속하여오면서나의일은충실하게하앗고서 예외오 결과 지금회원이칠십여명이나됩니다

新年의抱負

로동아학과기라게획

그리고 우리회원들중에는해인에서 활동하는분도만히잇슴니다보통사람이 무슨뜻인지잘몰으지요마는 나는해마다삼월팔일에뎡긔총회를엽니다하기에 삼월팔일이무슨날인지 몰라긔자는 무식이탈로됨도불구하고 다시물엇더니 그는방긋우스면서「아이그참그날이국제무산부인데이」임니다회원이머리악는것밥솟임닛가 지금와근사랍이거우어섯바게는 안됨니다인습(因襲)에커저녀자라고그 불편한머리를 과어허두어야할필요가 무엇임니가 새해를마지하엿스나 나도좀더일을 만히하여볼작뎡임니다 녀성단례의통제도만들고 문고(文庫)도설치하며 디방순회강연과로동부인야학(勞働婦人夜學)도 게획하여볼가합니다 그리고로동부인 위안음악회는해마다두번식을 열터이며부인문데에관한단행본(單行本)가든것도출판을하여서 한데밧는우리녀성의안식을넓혀볼작뎡입니다」!(옷)

◇사진은국제부인데이긔념간담회

演藝

映畵界의情勢 (二)
李龜永

영화계초긔(初期)에잇서 찬연(燦然)한광달이엿섯든것은 불란서엿스나 一八九년으로부터 一九一四년까지 그들의영화계는 이윽고문예작품을 무대연극(舞臺演劇)로써영화화(映畵化)하엿스며 파데 SCAL영화통이엄마나 우리에게집흔인상을주엇엇든가? 一九一二년경에는 이태리영화계의전성시대엿슴니다 찬란호극한인정비극 사극 그중에독어되로 가나?와나갓흔종교영화는조선에까지도와서 만흔환영을바덧든것은 사실임니다 불란서、이태리영화와가치발자(發刺)한 과운으로 이러나기는 독일영화이엇슴니다 건실한표현으로써 세계영화계에 염연히서게되엿스니 조선에도그들의작품이지금까지이러가지만흔것은 또한사실임니다 이와가치구주천쟁이전세계영화계에 중심으로구주에웃에 썩리깁히박혀잇섯슴니다 당시 미국의영화계는이와반며로 국히유치한활극인종천생극목동(牧童)활극가튼것을만히제작하엿습니다 생각하면미국영화는 그째부터보잘것업든더큰작품이엇든것은사실임니다 다만한가지특별히 긔록해둘것은 무대연출(舞台演出)을탈피(脫皮)하고이는구라파영화에비교하야 커우하그들의작품들이러한연출법(演出法)을떠나 새로운영화연출법에 드러가랴는경향(傾向)이 보혀든것임니다 이상이구주천쟁이젼의 세계영화계의 모양이엿슴니다 우찰줄모르는천쟁은 뭇해동안끌게속하다 쯧이나나 영화계에도 일대변천이 이엇슴니다 그는 미국영화의진성이엿슴니다 불란서도 이태리도독일도영국도 천쟁으로 회산된상황속에이째「분명히영화계의패자(覇者)는미국인을물밧엇슴니다 이것을뜻인구주각국의 새로운노력과천이로써 영화천선(戰線)에 나섯슴니다 그리하야영화계의 천복판(目標)는미국으로 모혀들게되엿슴니다

이태리는다우도사일정(熱情)과사랑을 고전취미(古典趣味)가뚝독어진 영화로써대오도라나가흔작품으로써탄환을 미국에보냇슴니다

독일도확호한외현과 장엄한 무게잇는작품으로 미국을향하야탄환을발하엿슴니다 그리하아미국은놀냇슴니다 이광경에 미국의영화계는 공포하엿습니다그들은 구주영화에대하야경계를하지아닐수업섯슴니다 반궁한재정상태(財政狀態)에빠진독일은그래도쯧까지 미국을 덕수(敵手)로거탄(巨彈)을진발하니명감독엘스트루비치씨의작품보다네구라타씨의「팟순(熱情)한천은 미국영화계를취음으로가장큰놀냄에빠지게하든것탄환이엇슴니다 뒤를니어서연(瑞典)영화독「시쓰토렘」씨의영혼불멸(靈魂不滅)」커든은 미국영화계에보낸구주영화의둘재번큰탄환이엇슴니다

米國新進 人氣女優 노마쎄라孃

미국녀배우의 인긔변환은참으로알수업다고합니다 작년가을부터새로이미국잔토와 큰인기를엇은녀배우가잇스니그는「노마쎄라」라고합니다 그는원쳬어난름장은업스나 긔농이일한덕으로고상하다하며 어더게형는해밀할수업는 인권력을가지고인다는데 그의작품으로조선에나와유명한것은 작년십월경에 우미관(優美館)에서 상영한일이바그사진은 작년도조선안에서떼올영화로 추천되는 코혼탈학(紅外折花)과가치 유명한세가지작품주한가지 엇첫따더라 사진은「노마쎄라」「양이다

市內普校에 府外兒童은拒絕
新學期부터實行
在籍證明은 지금부터준다

경성부에서 예산관계로 할수의는대로 아동모집을적게할 방침을세운것은 이번에통과된 예산안으로 그입단올 추측할수있는것인데 년래로문데가 되여오든 경성부외에 거주하는학생을 수용치안는다는 방침은 될정금년신학긔부터 실현을보게 되여신하과부터는 단연히 그리유의여하를불고하고 절대로 모집치안키로결뎡 되엿스며 현재통학아동약천명은 졸업할때 까지그냥 공부를식히기로 하엿다는데 부외아동을 거절한다함은 본래부터의문데로 군부에잇는 보통학교는 생수따라 텅텅빈곳도업지안어시흥군(始興郡)가튼데서는 보통학교에입학하려면경성부내로배년신학긔가될박할때마다매월수백명이호적게에몰려들어한번증명을엇기에 삼사일내지일주일이걸리는불편이만흠으로금년에는 이호적은업시하기위하야미리부터 증명을내여 주리라는바언제든지 조흐니 신청하여주면조켓다더라

「술맛모르는者의 酒類審査無資格」
됴선주품평회의심사원에는 술맛아는사람을전형하라고
朝鮮酒出品者의不平

경성부조선주품평회는출품점수가구십칠점으로오는십팔일부터 이틀동안경성부토목과누상에서 개최하기로되야방십오일부터 출품주의심사를 하게되여 작일에심사원들을선뎡하엿는데 조선주에대한심사원의 자격이 부족하다하야 일부주류 제조업자사이에서는 불평이비등하야 일간엇더형식으로 경성부 당국에 진정을하리라는바 그리유라는바는 작년도그래스되 금년도 역시그모양으로 심사원은 대데가 조선주에대한 풍미를감상할지식이업는사람으로그중에는 술의바람만 표준을하고품미여하는 지역몰라 그표준을 일허버리며 본주에비기며 더욱 심한것은술맛은엉알지못하는금주운동자도 잇서 정말술맛조흔 술이도로혀 락선이되는일이 가간잇섯슴으로 금년에는 정말술맛을아는술군을몃사람식 심사원속에 섹이게하여달라는것이라더라

懸賞課題
◇第十一回發表

二十七 중국에대일은성(城)

二十八 어른의청호

「冬梅」는羈絆을解脫 「五月」은依然囹圄에
어린아해간곳도아즉묘연
殷栗全某家女婢虐待事件

황해도은률군당련면 동부리(殷栗郡長連面東部里)부호전모(全某)의집에서녀종으로오월(五月)과동매(冬梅)의두녀자를두어두고 그들과그들의 소생인어린아해들에게 가진학대를 다하다가 작년가을에는 동매의소생인어린아해를 동매도 아지못하게어대로보내엇나 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사실이 본보에보도되자당련경찰서(長連警察署)에서는 그문대에인물인 동매를호출하야 여러날동안을 돌녀보내지아니하고 그사실의 진말을조사한후 이후로는 송노릇을함마유이업스면 마음대로 가라하야 그동리 동매의모친에게로 돌려보내엿슴으로 오월이는 비로방이되야 그악랄한 인습의기반을버서나서 이십수년만에 비로소세상의 자유로운몸이 되야무한히 깃버한다하며 아즉오월은 아모것도 아지못하야 종의멍에를벗지못하고 가련하게 그대로 그귀마의 생활을 계속하고잇는중이라는데 동매의 어린아해의 잇는곳에 대하야는 그동리에서 술장사 하는로파가소개 하얏슴으로간곳을 아는사람은 그로파뿐인데 그로파는 입을다물고일절말하지아니함으로 아즉 그아해의거처는막연하다더라(송화)

總會無效訴訟
昨日口頭辯論
판결언도는금월이십일
光化門金融組合事件

한참동안 문데로잇던 광화문금융조합(光化門金融組合)의불법처분과그조합원이류석대(柳錫泰)씨로부터 그조합장 량재규(梁在奎)씨를걸어 총회무효소송을데기 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작년 십이월 이일에개뎡될공판이 연긔되야 그만 그달이십일일에 개뎡되엿든바 피고 량재규(梁在奎)씨의변호사 금융조합 련합회(京畿道金融組合聯合會)리사일본인 매림묘태랑(梅林卯太郞)이 법뎡에나서서 금융조합령데십일조(金融組合令第十一條)에잇는 금융조합을취소하거나 또는무효로 수당함에는 도지사(道知事)의허가를어더야한다는것으로 사법관(司法官)에서는상관할것이아니라는 항변(抗辯)이 잇섯슴으로 피고의항변은 법률문데라하야 연구할 필요가잇다는 재관당의 선언으로 또다시공판이 연긔되야 작십삼일오후 한시부터 경성디방법원 데팔호법뎡에서 다시공판이 열린여원피고되구두변론이잇슨후원고측변호사 김태영(金泰榮)씨의변론이잇고 피고측매림으로부터역시금융조합령을해석하는항변이잇는후한시삼십분에 폐뎡되엿다는데 판결언도는 오는이십일이라더라

龍塘浦結氷
뎡긔항로중지

황해도룡당포(龍塘浦)포구의절벽으로 인천(仁川)해주(海州)간의조선우선뎡긔항로는구일부터 항행을 중지하엿스든데 이뻐문에 해주방면으로가는 소포우편은긔차편으로신원역(新院驛)부러자동차편을리용하기로되엿더라

府의社會調査
금년부터착수

삼십사만명이나 사는 대경성에 아직도 사회정책상으로보아 이렷타할만한 사업이엇섯고 오직국히소극뎍으로 조사를 하엿슬뿐이든바 대정십오년도 부터는 사회덕시설에대한 종합덕 조사를하고저 게획을세우고 얼마아니하야실지착수를하리라는데조사할방면은

作家、生活狀態、乳兒死亡、私生兒、浮浪兒童、不良少年少女、待遇差別、內職、失業、私設職業紹介、工場福利施設

등인바 이중에 유아사망사생아박약아동등의조사는교육행정에 관계된자이오 기타는 사회정책재로가되리라더라

永樂町强盜
피의자검거취조

괴보=시내본정서에서는영락뎡(永樂町)강도진범을아직까지잡지를못하고 강도전과자명부(强盜前科者名簿)에실려잇는 뜻명을형의자로추측하아시내서사헌뎡(西四軒町)어느창기집에강복한최성봉(崔聖奉)외두명을검속하고 그간여러가지로 취조한결과 최성봉은 작십삼일아츰에노아보내고 그남어지두명은 아직까지취조를하는중이라더라

◉天氣豫報◉

晴一時曇

昨日正午 昨日最低 昨日最高

靈光

靈光郡法聖面九岫浦 海陸物産委托賣買取扱業 朴莊燮

靈光郡法聖面九岫浦 海陸物産委托賣買取扱業 徐良珍

靈光郡法聖面鎭內里 李大雨

羅貨商 靈光郡法聖面九岫浦 金宇烈

前參奉 靈光郡弘農面桂馬里 金良洙

羅州

羅州邑內 羅州金融組合

羅州邑內 錦南金融組合

羅州面錦町 平安醫院醫師 康秉燦

羅州面本町 鄭遇集自轉車舖

羅州郡新面事務所 面長 金鍾彥

羅州面本町 錦城燒酒製造業 李昌洙

羅州面本町 鐵工業 金秉鉉

羅州面朴丁里 南興七

羅州郡榮山浦 勇興製菓堂 主 盧釆鎭

羅州郡金川面石田里 鄭漢聲

羅州郡南平面校院里 金漢燮

羅州郡山浦面蟠亭里 徐今德

羅州郡茶道面楓山里 洪判正

羅州邑 羅州公立普通學校 校長 川上治郞 訓導 玄泰祐

羅州郡榮山浦 金太浩

羅州面大正町 金吉洙

羅州郡茶道面楓山里 洪鳳憙

羅州郡茶道面楓山里 洪承爰

羅州郡茶道面楓山里 洪凡植

羅州郡山浦面山齊里 金基采

羅州郡南平面南平里 姜善仲

羅州郡南平面東谷里 丁奎俊

羅州郡南平面楓林里 李碩鎬

羅州郡南平面楓林里 李漢珷

羅州郡南平面楓林里 李漢南

羅州面北門町 司法代書人 梁長柱

羅州邑內 羅州幼稚院

羅州郡榮山面山亭里 精米業 金性悳

羅州郡羅州面北門町 金上炫

羅州郡羅州面大正町 朝鮮料理 錦一館 主 宋奎、鉉

羅州郡榮山浦 朝鮮料理 明月館 主 金在基

羅州郡羅州面大正町 朝鮮料理 錦樂館 主 文奇奉 藝妓 洞庭月 同 珊瑚珠 同 海東月

羅州郡茶道面楓山里 洪泰憙

羅州郡茶道面楓山里 洪丙憙

羅州郡邑內 郡守 安鍾哲

羅州警察署 職員一同

羅州面事務所 職員一同

羅州面鄕校里 鄭鈞𨧀

羅州面本町 湖南醫院 金明濟

羅州郡榮山面事務所 職員一同

羅州面驛馬洞 司法代書人 昇秉湖

羅州面北門町 精米及綿業 朴成柱

羅州面北門町 梁錫煥

羅州郡南平面事務所 面長 丁甲鎭

羅州郡山浦面事務所 職員一同

高麗精蔘 製精

開城北本町 製造發賣元 高麗蔘政公司 電話一五六番

經濟時論

다시못볼韓國貨幣(六)

朝鮮에中央銀行의沿革은大略以上과如하다 그와갓튼沿革에從하야우리社會에는여러가지貨幣가流通되엿든것이다 第一銀行券이 우리의使用하든貨幣이엿섯고 韓國銀行時代에는韓國銀行券이 우리가使用하든貨幣이엿고 朝鮮銀行時代에當하야는 오늘날朝鮮銀行券이 우리가使用하는貨幣이다 葉錢과 白銅錢은 典圜局에서鑄造하든것으로 命을維持하여오든것은 名義만은韓國의中央銀行으로存立하엿든 韓國銀行의製造貨幣이엿섯다 以上에서 韓國銀行의沿革을 본바와가치 同行의實績은우리의것이아니엿섯지만

은 아직까지나마잇는 韓國銀行에對한 우리의觀念은旣往의 第一銀行이나 今日의朝鮮銀行에對한觀念과는 조금다른점으로 생각한다 따라서韓國銀行에서鑄造發行한 韓國貨幣에對한觀念도 旣往의第一銀行券이나 今日의朝鮮銀行券이나에對한觀念과는 多少다를줄로생각한다

◇

녯날에는우리나라에貨幣制度가不完全하엿더니 信用할만한流通貨幣가업섯더니 오늘날사람들은 우리는不完全한貨幣時代에잇서서 事實우리의貨幣를使用하엿슴이오 貨幣制度가完全해진以後부터 우리社會에流通되며 우리가使用하는貨幣는 其實우리의貨幣가아니오 다른사람의貨幣이든것을 누구나以上朝鮮의中央銀行의沿革變遷에서듯기리라한다 第一銀行의發行貨幣가 우리의貨幣가아니엿섯고 오늘날朝鮮銀行의發行貨幣가 우리의貨幣가아닌것은勿論 오늘날永離別하게된 韓國銀行의貨幣도 우리의貨幣가아니다 그러나우리는韓國貨幣라는말을듯고 또는그遺物을볼때에 오늘날의우리의衰滅을悲哀하며 녯날의우리의榮華를追想치아니치못하게된다 締捕命令을바든韓國貨幣는 아직도이곳저곳에숨키여잇슬것이만흘줄로생각한다 나가라나면捕縛을當할터이닛가 避身處를求하여숨고저하는것이 『돈』그것의本意이겟지마는 命令을밧게는主人의告發에못이겨 거히다締捕되고 아직도나아지나서 또다시追跡될念慮는업서졋다하나 捕縛令에代하야 終身禁錮의命令이發하매 나마잇는『韓國貨幣』는『돈』으로行世를못하게되엿스니 그를爲하여可惜한일이다(終)(SU生)

今年貿易豫想

米低價와消費增으로結局悲觀

十四年朝鮮貿易은百三十萬圓의出超로終한바 或은入超에轉할것이라하엿든것이 겨우百三十萬圓이라는出超로終하엿슴으로 此點으로보면好成績이나 前年의近二千萬圓의出超에比하면激減이다 此는今年의貿易은入超로終하리라고推察되야 朝鮮은米作의結果 前年보다約百萬石의移出增을招來하야도 前年보다石當五七圓低落이며 米의移出의量은增加한다하야도 價額은前年同額이나 代用食의粟, 外米의輸入이 十四年보다減少되면 그만콤輸入額은 減少될것이나 其他의消費는漸次增加하는傾向이오 그自然增外에事業勃興에 [illegible]

財界

에畯法을與한米豊作의結果前年보다約百萬石의移出[illegible]

減少

할지나朝鮮內의綿絲布其他의消費는漸次增加하는傾向이오 그自然增外에事業勃興에入額은

不可能

한問題로結局農村金融機關인金融組合에依할수밧게업슬것이다 그럼으로組合數를增設하고 出張所를增置하야資金의融通을容易케함은가장必要한問題이다 卽來年度부터增設코저하야 이미二千組合을目標로하고 十年後에는組合의助勢機關이되게할것이라더라

十年後千組合=總督府

에서는來年度부터金融組合增設費로更히八萬圓을計上하고 從來의旣定計劃의五萬圓과合하야 十三萬圓인바從來는組合設立에對한國庫補助는設立初年度부터三十五百圓이엿는데今後組合을激增함과經費의關係로此補助額을減縮할模樣이며 一個年에約五百組合의增設로十個年에約五百組合을設置하야結局千組合으로할方針이라더라

滿粟入增

平安地方山積

滿洲粟의朝鮮內輸入은一時滿洲騷亂과此에附隨하는奉票大暴落으로有力側에서는商談을中止하엿다가그後時局의安定奉票의漸次恢復으로朝鮮側의買付도一時利는大勢軟調에傾하야貸出에移動性을띄여低資借換이流行하고 銀行整理淮捗의傾向이顯著하다더라(東京電)

日綿關稅引上

印度當業者運動

印度紡績業者는大商業會議所는日本積出品買向綿絲布의關稅引上必要로日印通商條約廢棄를決議하고此組織的運動에着하엿다더라(東京電)

獨銀利率引上

九分을八分으로

獨逸中央銀行의取締役會는及定步合을九分에서八分으로引下하기로決定한바 商品有價證券擔保貸付步合은一割一分에서一割로引下할것을發表하엿다더라(伯林十一日發)

正金爲替引上

對外爲替는繼續强調로正金銀行은十三日朝에다시建値引上을行하고對米二磅高의四十三弗八分七對英一○○磅의一志九片八分五로各各引上하엿다더라(東京電)

低資借換激增

金利는軟調

日銀貸出의激減兌換券의急縮으로金融은더욱緩漫하야 低資借換이[illegible]로呈하고 鐵三厘로下落하며 期割引日步도一厘가低落한바 今後生絲資金도回收될터임으로金融은 [illegible]하리라더라

綿布界의前途

三A는畢竟三百圓을割下乎

昨年十月初三百八千圓을唱하든三A綿布와朝鮮時勢는其後漸次低落의一途를取하야 舊臘末에는三百二十五圓十二日에는二百十五圓으로一高一低裡에 三十四本月十日三百二十五圓으로 三萬俵의新記錄을作하면서도在庫를內地에서消化하기不自然하게되면 今後三百圓內外의大勢를脫하야漸次三萬俵의新記錄을作하든中이데 日本은廿三日入港할터이라는데 仁川과日本各港間의運賃은如左하다더라

	圓	錢	圓	圓	圓
地名	穀類	糖	雜貨	綿	太粕
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舞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敦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伏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函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百石一叺

金組增收

外産組의同樣

十五年度朝鮮內新設金融組合에就하야는從來의十個所를二十三個所로增設하는同時에出張所를四十個所乃至五十個所新設하게된바 今回의金組資金의助勢機關을作함에잇고 金融組合은現在組合內에五百十一의金融組合이잇는데此를

金鮮的

으로보면三個面乃至四個面에一個所假量에不過한즉 農村의金融機關으로利用者가激增하는今日到底히如上의僅少한組合으로는그期待에副할수업다 勿論産業組合이朝鮮內의遊民에職을與하고朝鮮을産業化하는以上그

消化力

을反映하는中이나 朝鮮內의綿布時勢는全然根底가不安한投機側의策動에依하야二百圓以上의浮動時勢를維持하기에 不足한形勢로 朝鮮內市況에는全然無旋價으로依然低迷狀態의反撥을 것이라 三A와如한것은二百圓臺를割하는 것이고 [illegible]

銀行會社

殖銀不增配

=殖銀의今期定期總會는二月末에開催할豫定인데同行의株主配當은從來보다增配할希望이며有價殖銀頭取는그時機가아니라하야每期九分을据置하야왓는바今期도重役間의意嚮은增配치아니할方針인듯하다더라

鮮銀配當五分

鮮銀에서는株主配當을年五分으로內定하고二月二十四五日頃總會에附議한다더라(東京電)

北海航路運賃

第一船入仁

爲替汽船에서開始한仁川北海道航路의第一船大成丸은十四日仁川入港하고續하야第二船長成丸도入港

完全恢復은

時期尙早

鮮滿財界가好化하는傾向이顯著하고또이미五六個月間低落一方의趨勢를挽回하기에足한機運에際會한것이지만은一部의상像과갓치商機를逸하야將次波動이일어나는때에備하여야할것이다

期米 前場保合 十三日仁川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前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動遊

昨後場三十二圓六十六錢에保勢로止하엿더니 今朝阪地初付가又復八丁低付하야 二十六圓六十二錢을報하니 當地는三十二圓五十九錢에七丁低로初付한後漸次五十六錢五錢에低步하다가 다시五十九錢에强化하야二本同價로 騰着되더니 阪地低弛와共히小口買方의壓氣投出과軟派賣進으로 또五十二錢에低落하엿스나 步幅이狹少함으로賣買閑散하며 이는것이世間이란듯시賣買方이緊張치아니하야閑散不振의商況裡에서 五十五錢에無勢히止하다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組高(單位石)

	當	中	先
帳入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本期總數	[illegible]		

各店俵合

中限◇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先限◇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商勢不透明

厭症나는人氣

春高期待의標的이던一月限이發會한지도一旬이되엿스되上下步幅이五十丁에不過한데其中十一日一個日이조금可觀의波瀾이잇섯슬뿐이오其外는全部가眼着保合狀態를脫치못하니新年劈頭의步調로는또한稀貴한現象이라고아니할수업다 그러함으로누구나動치안는時勢에손을떼이는것만이相이라고생각하야一向傍觀할뿐이니여러김작한곳에여러지지도못하고오른듯한곳에오르지도못하야商勢는漸漸不透明하게만되나人氣는厭氣가瀰滿하야市場은賣買高만減退하니時勢가動치안는德澤에來客便에는別般利害가업는것은多幸일지모르되일것新年各仲買店의일이만이아니다 그러하나이것은新年新年 [illegible]

仁川正米標準時勢

㊀三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㊁四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無檢查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一石	[illegible]
正粗改良種	一斤	[illegible]
在來種	一斤	[illegible]

全國降雪과

産地出廻如何

冬節에降雪이頻頻한것은春夏期에降雨가多할前提라하야農家에서는昨今降雪이多한것을깁버하는貌樣이라하나年末年始의交通上障碍가잇다는것을말하기에도두려운일이지만은今般降雪은全鮮에亘하야頗히多量이라하엿다한즉各産地에서造米하는데에도關係가적지아니할것이오더욱히運搬上支障되는點이頗多할것이니結局은集散市場의在米減退를招致할念慮가全無한것은아니로되지금과如한時勢에騰落이잇슬程度의影響은업슬것이다 一時天候關係로搬出치못하던것뿐이나이럿게되면輻湊하는結果가잇슬지도難測인즉將來에不時에集散市場을威脅하는것이도리혀잇슬지모르겟다고皮肉的觀察을하는便도잇더라

◇阪仁의步調가强한듯하다가도여러가지를조아하는것을보면어느程度까지一層低迷하고야오를貌樣이로군

◇米豆餘慶

◇米山時代에直面한關係를생각하면當分低迷하는것이當然한듯도하고또多月低落한關係를보면참어가면서사는것이合理일것갓흔니實로엇지하면조흘것인가

◇日前에强材로헤일것도업지만은너나할것업시買付하기를견우는便이多한것은事實인데實勢는그러치도아니하니如何間迫迴하던手가도어려워

◇緣故로阪仁步調가커와가치不透明한게야閑散不振도하로이틀이지客年十二月부터이니아주여아모리壯士라도厭症이아니날수업서

◇昨日買上成績을듯고는⑦도買出動하는氣色이잇더니아주 其時機가안인것으로보앗든지積極으로出動치도아니하는貌樣인걸

◇迫으로勿論上伸치는못하지만은그러타고大한低落도업슬것이나아즉어느便으로던지積極的出動을할時期가안인게라고說하는便도잇더라

後場止跡氣配

◇先限三十六圓六十四錢

東京期米

前場		後場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兵庫期米 / 下關期米 / 桑名期米

	付値	止値
兵庫 前場	[illegible]	[illegible]
兵庫 後場	[illegible]	[illegible]
下關 前場	[illegible]	[illegible]
下關 後場	[illegible]	[illegible]
桑名 前場	[illegible]	[illegible]
桑名 後場	[illegible]	[illegible]

各地期米高低

	前日止値	今日前付	比較
仁川	[illegible]	[illegible]	低
大阪	[illegible]	[illegible]	低
東京	[illegible]	[illegible]	高
兵庫	[illegible]	[illegible]	低
下關	[illegible]	[illegible]	高
桑名	[illegible]	[illegible]	低

◎各地穀物

大邱 穀良 一月末 二月中 三月末 [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賣買高 [illegible] 一月末 二月中 三月末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場止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穀良 賣買高 [illegible] 一月末 二月中 三月末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場止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式 前場薄商 十三日京取

◇京取十錢低◇大新八十錢高◇久原十錢高◇鍾新二圓十錢低◇仁新保價◇朝紡保價

氣乘薄場面

硬軟兩方이모다 出動을躊躇하야 商內

◇大新은多少氣勢가挽回되야百四圓八十錢付價로五圓臺를恢復하엿스나◇鍾新도百四十九圓九十錢付價로 阪地에比하야大下로大引은五圓十錢을示하고◇京取는十七圓十錢低로 軟化하야一圓三十錢의高價와同價로五十四圓臺乘으로硬調이엿다가 五十四圓臺乘으로硬示하며◇京取는七圓十錢付價를示하엿다가

七圓三十錢을反撥하야

同價大引을示하고◇仁新은十五錢高로 [illegible]

此邊騰落?

解散懸念無用

連日市勢가上伸力은微微하고急落을呈함은(一)議會解散風說(二)貿易入超로한結果로볼수잇다 그러나此는그다지憂慮를拘할材料가아니니 卽議會解散說은尙早이니 共認하는바요 諸般의政友會內閣이出現할것임으로 政局懸念은持할것이요 依然樂觀을不許할줄로생각된다

的低價賣物이 적은것을보면 今然賣方針은 考慮할바이니 要컨대 此邊騰落의 反撥이 有理할듯하다

鍛鍊市勢

連日商狀으로는多少一服的不振味가잇는一面根本的陽氣를呈하는現象으로도볼수잇스며또一般의神經은極히過敏化하니此市勢가鍛鍊의域을越할때에는實로可觀을呈할것이다

新規仕手

日本의產業이低落하야送資所持側에서는代用處를探求에汲汲함으로新規仕手가增加하는情勢를一層助長하는好感氣分이有力하다

京取現物吸收

京取는可觀의伸氣가업스나그步調의底흔極히强硬하야深押을期키難하나요새阪地頭重을作하야急激한漸展은疑問임으로一

般人氣는 策動을 避하는反面에 大勢는 高價觀이有勢하야 現物所持에汲汲한것은顯著한傾向임으로金融社에는株가逐刻減少할뿐이다 이와갓튼現物吸收는市勢로하여금一層그底意를强硬케할것인즉

目前의灰汁拔後에는

十五圓臺를躍付하리라는觀測이旺盛하다

高買警戒

大勢는上伸

週日晴天의初立會市勢가갓튼後로는不絶히波瀾萬丈이엿스나還曆是活躍의場面을早하엿스나 外의利上投機熱抑壓策戰風이擡頭하야波瀾의幅位는漸次縮少케된것이니要컨대今後趨勢는市勢가從來棒直上騰의

境域에서 이미波瀾期에入한

것은瞭然한즉上伸에는반다시正株警物이追隨할것이요또漸次輸入超過에入하는途中이며 特히로一時波瀾을免치못할것이다 日下에는正整理가잇는後에

强弱見解의 分岐點으

行을背景으로하고高價買의警戒裡에健實한買上伸을演出한듯하다

諸株當日取引

◇鮮銀新株十一圓十錢◇鮮銀新株五株十圓十錢◇鮮殖四新株五圓二十錢◇當時四圓二十錢(以上成請)

勸信株四圓二十錢◇朝火海株九圓(大林區賣買各五十枚)

商銀長期取引

長期取引先物大引에商銀株는十一圓八十錢으로大林區賣買의直千枚가인엿다

前場諸株步調

◇京取=[illegible]
◇鍾新=[illegible]
◇大新=[illegible]
◇久原=[illegible]
◇仁新=[illegible]
◇朝新=[illegible]

後場硬調

◇鍾新二圓七十錢高◇大新七十錢高◇京取六十錢高◇久原一圓高

鍾新繼續上伸

今場에京取는八圓臺接近의硬調로鍾新도六圓臺外지出現하엿슴으로鍾新은百五十四圓三十錢高付價로伸氣가相當하엿다

後場諸株步調

◇京取=[illegible]
◇鍾新=[illegible]
◇大新=[illegible]
◇久原=[illegible]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仁新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二千四百枚

累計 十一萬二千七百五十枚

大阪短期取引

株名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付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鮮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同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株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取	[illegible]	日石	[illegible]
鐘紡	[illegible]	富士紡	[illegible]

◎大阪三品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止價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綿絲布

▲粗布(成木) [illegible] 不老草
三星 [illegible] 時計
木鐸 [illegible] 天桃
三神山 [illegible] 大A
三A [illegible] 九牡丹
金剛山 [illegible] 管
金鷄 [illegible] 貨
▲細布(洋木) 鷲 [illegible] 島
飛犬13 [illegible]
▲晒金巾(玉洋木) 軍 [illegible] 金
▲綿絲
扇面16 [illegible] 女
▲晒木綿(광목) 晒木綿 [illegible]

◎海外經濟 十三日着電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米綿 [illegible]
印綿 [illegible]
英米爲替 [illegible]
스텔링 [illegible]

아나콘다 [illegible]

手眼記 (十) 春園作

떡덩이령감 (三)

『나외다』

하고나는 문을열고 다단히허리를굽히고 고개를수기고 문시지방을조심하고 한참이나 둘러보고야 떡덩이령감이 앞에복에 안저서 들어섯다

『오 돌배ㅅ집간놈이가추운데 어더케왓나 자이야맷목으로와 안에다둘평안하가』

하고 누덕이를얼아노으로자리를 권한다 나는령감의호의에경의를 표하야 지린내나는(이것은왼동네아희들의 공동한누더기다 아마이지린내 속에는이십여년전 버오줌버도 이슬것이오 설마그럴가하지마는 우리아버지 할아버지 삼대의오줌똥냄새가 섯겻슬는지도모른다)누더기를깔고 안졋다 피리는엽는내소매人속에서나와서그누더기우에안저 매人자고人자로 앉아 먹기를시작한다

우리는 이령감을보면 뭣인사부러웁답을 하는법이기 때문에 『령감날도 무슨취음하시오?』

하고약속을하엿다

『허허엇더케 갓다주기시지바라겟노 이다가 우리봉이 더머나나 가거든 한그릇주지—버아 안먹으면 대순가』

하고 한번싱긋웃고 그러케 물려길을하는 시작한다 그러케 물려길을하는양을보면 령감인지 로파인지 구별을수가업다 머리가지도 이 제는거의다 쉬어서 상투는형지 분이오 게다가 머리가실며 서다누스니 목로과다 오직하나사 버다 안지고 게다가 수염이 한개도업라 수건을동이고 쇠부상하고 온것은 그목소리뿐이다

령감은 두어번이나 불쎄를두두더니 먼적녯날을 바라보는듯이그 거싱츠래한 눈에버적번적 빗을내더니 픽근돌아안자 손으로내뎅을언두만지며

『우리봉이도 살앗드면간놈이 모양으로 이러케 다닐게을 그만죽어서—』

하고죽은봉이 이야기를또겨낸다 나는 옛버이나 이말을들엇는지 봉이가 살앗스면지금十이 켓

『아니야요 오늘은뮈 일부러 안졸라오구요』

『옹. 그래. 오늘이 칭명이지— 자것기때문이다

『그런데이러케 일을하시오?』

『홍흘마누라는 나무하러갓는데나도일해야지……또일을안하면십심해서』

『떡심고십지안소?』

하고 나는등연지로 불엇다

하고 한다는이렁검은 여전히 불레질을한다

『허허떡이잇서야 먹지……참우리떡조와해지만……허허』

하고 떡이란말에 흐뭇하여서 볼레질도 굿치고 돌아안는다 앗불사 공연한말을하여서 령감의 아안죽 비외를 동하여노햇다 한 대감네집에서 바든떡을 반만먹고 반만차다가 듯엿스면 퍽 생색이되엇슬것을하고 후회하나 쓸대업서서

『내일이다가 우리떡되거든한그릇갓다들일게요』

하고최말을부쳣다

령감은부부하고 여전히 버무든 솜으로물레질을하면서

『명질이지—』

한 말이엄서서 아퍼케 물엇다

『봉이가 갑돌이와 한해살이엇다면 엇만고사주가 감술갑이엉신 병오야 감이둘이고 병이둘이되어서 갈살리라고하대 강네령감이 그리더니 어듸 맛던가——사주도만마자』

하고심심해한다

社告

本支局에서今北支局의內에移分局을設하옵고左記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시압소서

一、職氏名

分局長 安榮植

總務兼記者 李熙周

顧問 呂禹鉉

東亞日報 永同支局 白

本支局에서顧問으로在하든某氏를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시압소서

東亞日報 任實支局 白

客年十二月二十三日附本報第一九四一號四面에掲載된社告中分局記者金●의姓名은錯誤이기玆에訂正함

東亞日報社 白

土金 特別高價買入

京城府明治町壹丁目

德力本店 京城出張所

電本 二一一一 二九七二 二〇八八

最新洋靴大宣傳

世界的最新式洋靴는本洋靴店에서만

總
皮靴

定價 上 短靴 七…八…各 …上 五十錢

地方注文은代金引換으로
太盛洋靴店

朝鮮劇場
民衆劇 運命의노래
명령구리!
弱者도奮起하면
美男萬歲
女子盜賊
[illegible]

●書簡(手紙)잘하면成功의源! 못하면失敗의因!
本書一冊만잇스면 어더한手紙던지 모다쓸수잇슴니다
絕對의寶典
現代模範手紙大辭典
無比의價廉

完全된最新式의片紙大辭典
本書는中央手紙界의專門大家가多年苦心研究한結果
新現代用語辭典
通俗時文
今直時 펜글자 草書字典
特價金一圓五十錢
發行所 三光社書院